

The **논술**  
ADVANCED

By Jack

The 논술  
ADVANCED

논술  
주제 일반론

### Rule1 논증이란 무엇인가?

‘논증’이란 자신의 주장(결론)을 명확하게 밝히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나 증거(전제)를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논증의 첫 단계는 자신의 주장이 무엇인가와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논증에서는 주장을 ‘결론’이라고 하고,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전제’라고 합니다.

#### 예시

나는 나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웃을 것이다.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 자신은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위 문장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하나의 논증입니다. 왜냐하면 왜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쳐도 웃어야하는가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웃을 것이다.’ (결론)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 자신은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전제)

하지만 문제는 위 문장처럼 전제와 결론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문장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 예시

402호의 신문보관함을 살펴보았다. 그 보관함에는 신문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402호가 장기간 비워진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위 문장에서 결론은 ‘402호가 장기간 비워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신문보관함에 신문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라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신문은 보통 매일 배달되기 때문에 현재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신문보관함에 배달된 신문을 매일 가져갈 것’이라는 일반적 사실입니다. 위 문장은 이러한 일반적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서 전제로 사용하여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Rule2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반드시 제시하라.**

전제와 결론을 구별하는 법을 배운 이유는 논술에서는 **항상 자신의 주장(결론)에 대한 근거(전제)를 제시해야하기 때문이다.** 논증하지 않고 주장만 펼치면 낙제점수를 받게 된다. 이는 논리력의 부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논증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사실은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라톤은 42.195km를 완주하는 경기이다.’

이것은 사실이기에 논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알아둘 개념이 있는데, 바로 ‘공리’라는 것입니다. 공리란 논리학이나 수학에서 쓰이는 개념으로서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참이라고 인정되는 명제’를 뜻합니다. ‘어떤 자연수에 대해서도, 그 수의 다음 자연수(따름수)가 존재한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 등이 공리의 예입니다. 논술문을 쓸 때에는 사실을 수학의 공리처럼 대하면 됩니다.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취향과 주장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취향 또한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자신의 취향을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회는 서로 다른 취향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기에 우리는 타인의 취향을 존중해야 합니다.

‘나는 수지가 아이유보다 좋다.’

이것은 주장이 아니라 개인의 취향입니다. 이는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고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장은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주장은 논쟁을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고 자신의 주장이 다른 주장보다 더 설득력이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지키기 쉬운 원칙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만을 늘어놓을 뿐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첨삭을 하다보면 많은 학생들이 종종 논증하지 않은, 그래서 반박할 수 없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나쁜 예시**

제시문 (가),(나),(다)는 모두 새로움에 대한 다수의 역할에 대해 논하고 있다. 하지만, 그 새로움을 수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제시문(가)와 제시문(나),(다)는 서로 구별된다.

제시문 (가)에 따르면 바람직한 다수는 새로움을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시키지 않는다. 제시문(가)에서 종교창시자의 능력을 가진 피타고라스, 플라톤이 수준 높은 그리스에서 종교창시에 실패한 점과 루터가 남유럽에 비해 뒤쳐진 북유럽에서 성공한 종교개혁을 보아, 다수가 새로움 반대한다는 것은 반대파의 요구들이 더 많다는 것을 뜻하고, 다수가 새로움에 대해 반대하지 않고 이 새로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본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회가 천편일률적이고 저급하다는 것이다.

**한편, 제시문(나)와 (다)는 공통적으로 다수의 새로움에 대한 수용이 진보와 발전을**

**이룬다는 점에서 새로움에 대한 수용을 긍정한다.** 하지만 제시문(나)와 (다) 역시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주체와 새로움을 전승하는 수단에서 차이를 보인다. 제시문(나)에서 새로움으로 치환될 수 있는 걸작은 독립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여 혼자서 완결되는 자기완결성을 띤다. 그리고 걸작은 그 걸작을 모독하는 아류를 통해 전승된다는 역설을 가진다. 걸작을 모방하고 모독하는 아류를 다수가 비판한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걸작에 대한 존경심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시문(다)에서 혁신(새로움)은 무수한 창조집단의 집단적인 성찰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혁신은 기존에 있던 것들을 모두 잊게 만들고 새로운 것을 기반으로 다시 축적을 해 나간다. 이러한 대체와 축적의 과정을 통해 새로움은 발전하고 계승되는 것이며, 이는 사회적 진보를 가져온다.

위 글은 The논술 ‘연세대편’에 들어 있는 내용으로서 연세대 논술에 대한 학생의 답안입니다. 전반적으로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잘 제시한 글이라고 볼 수 있으나 **‘한편, 제시문(나)와 (다)는 공통적으로 다수의 새로움에 대한 수용이 진보와 발전을 이룬다는 점에서 새로움에 대한 수용을 긍정한다.’**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논술 채점자들은 글에서 학생의 주장이 발견되면 그 주장의 근거에 해당하는 문장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만약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거나 불충분하면 이는 논리력에서 큰 감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Rule3 글의 주제에 집중하라.**

자신이 말하고자하는 바에 집중하라. 주제에서 벗어나는 문장을 쓰는 순간 논증은 실패한다. 상대방에게 비판의 실마리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글을 쓸 때는 반드시 주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처음에 설정한 방향과 다른 곳으로 글을 전개하지 말아야 하고 주제와 관련 없는 문제나 정보를 끌어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이 말하려는 바가 무엇인가를 끝까지 잊지 말고 거기에 집중해서 직선적으로 글을 써나가야 합니다.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은 선입견과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는 것입니다. 글을 쓸 때 선입견이나 감정에 빠지면 주제를 잊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글이 본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주제와 상관없는 내용이 들어와서 실패한 글이 만들어집니다. 아래는 존경하는 유시민님의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이라는 책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왜 글의 주제에 집중해야하는가를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는 없기에 책의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예시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中)**

감정에 휘둘려 저지른 사소한 실수가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킨다.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 그리 유쾌하지는 않지만 내가 겪었던 사례를 하나 소개한다. 예전에 함께 정당 활동을 하던 분들과 크게 다툰 일이 있었다. 끝내 갈등을 수습하지 못해 갈라서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 하필이면 그때 중앙당의 고위 당직자가 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렸다 공동대표였던 나를 가까이에서 자주 보았던 사람이었다. 이 글의 핵심은 밑줄 그은 세 문장이다.

짧은 일화입니다.

유시민 전 공동대표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습니다. 권력에 가까이 있어본 경험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거짓 발언과 아메리카노 커피 관련 이야기입니다. 유시민 전 공동대표와 심상정 의원의 공통점중 하나는 대표단회의 전에 아메리카노 커피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메리카노 커피를 비서실장이나 비서가 항상 회의 중 밖에 커피숍에 나가 종이 포장해 사온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해가 안가고 민망해서 모 공동대표 비서실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공동대표단회의 앞두고 매일같이 밖에 나가 비서실장이 아메리카노를 사옵니까?”라고...

비서실장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아메리카노 커피를 먹어야 회의를 할 수 있는 이 분들을 보면서 노동자 민중과 무슨 인연이 있는지 의아할 뿐입니다.

여기서 글쓴이는 어떤 주장을 했고 사실을 근거로 들어 그 주장을 논증했다. 논리적으로 크게 흠잡을 데가 없다. 상당히 잘 쓴 글이다. 무엇보다 주장이 분명하다. 첫 번째 밑줄 그은 곳을 보자. '유시민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다.' 주관적 가치판단을 담은 이 주장을 논증하기 위해 '비서실장한테 커피 심부름을 시킨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밑줄 그은 문장이다. 여기까지는 성공했다. 주장과 근거가 다 명확하고 논리적 연관이 뚜렷하다. 정의와 평등에 대한 사람의 직관을 건드린다. 이런 주제로 글을 쓰면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인간이 누구나 똑같이 존엄하다고 믿는다. 20세기 지구행성에 존재한 대부분 문명국가에서 이것은 '공리'가 되었다. 사람들이 이 명제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진리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상일 뿐,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 똑같이 존엄한 인간들이 활동하는 조직에 수직적 위계와 서열이 있다. 지휘하는 사람이 있고 지휘 받는 사람이 있다. 평등한 인간이 평등하지 않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다. 위계조직은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 존엄과 만인의 평등이라는 이상을 버릴 수도 없다. 어떡하든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조직의 위계를 인격의 위계가 아니라 역할 분담으로 해석하는 관점이다. 조직의 위계와 서열은 인격의 높고 낮음과 관계가 없다. 신분 차이나 지배, 종속 관계도 아니다. 단지 인격적으로는 평등한 개개인이 조직전체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합의에 따라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위계 조직 안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협력한다. 조직에서 지위와 서열이 낮은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곧 '인간의 평등과 존엄성'이라는 이상을 존중하는 행동이다. 이 관점은 모든 조직에 적용할 수 있고 또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육군대장과 이등병, 정당대표와 당직자, 국회의원과 비서관, 기업경영자와 영업사원, 항공회사 임원과 승무원을 가릴 필요가 없다. 위계와 서열은 조직의 목표 수행과 관련한 영역에만 적용해야하며 그 한계를 넘어 인격적 상하 관계나 지배, 종속 관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이 원칙이 지켜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 청소 노동자와 '주먹인사'를 하는 사진은 세계 시민의 호감을 얻었다.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고 좋아한 것은 세계 최강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에도 이 원칙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똑같은 이유에서 누가 이 원칙을 무참하게 짓밟으면 사람들은 화를 낸다. 어디다 대고 말대꾸야! 내가 세우라잖아! 소위 '땅콩회항' 사건 전체를 통틀어 가장 격렬한 분노를 일으킨 것은 이 말이었다고 생각한다. 회장의 딸이며 대한항공 부사장이었던 조현아 씨는 그렇게 말하면서 비행기를 후진시키고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쫓아냈다 부사장과 사무장은 조직에서는 상하관계 이지만 인격적으로는 평등하다. 이것이 문명사회의 상식이다. 그런데도 부사장은 사무장의 인격을 무시하고 노예 취급을 했다 조직의 위계가 마치 인격의 위계인 것처럼 행동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자기 자신이 모욕당한 것처럼 화를 냈다. 정부 당국은 평소대로라면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겼겠지만, 너무 많은 시민이 자기 일처럼 화를 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벌가의 딸을 감옥에 집어넣어야 했다. 1심 판사는 피고인을 엄하게 꾸짖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상은 그저 이상일 뿐 현실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말하지 말자. 이상은 종종 철옹성처럼 보이던 현실을 흔들고 무너뜨린다. 이제 정당의 대표가 비서실장이나 비서한테 커피심부름을 시킨 일로 돌아가 보자. 이것은 조직의 역할 분담을 넘어 인격의 평등과

존엄을 해치는 행위인가? 정당은 같은 정치적 이상을 지닌 사람들이 스스로 원해서 만든 단체다. 직급이 아래라고 해서 당원 동지한테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인격적 존엄을 해치는 행동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당대표가 비서실장한테, 국회의원이 수행비서한테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사람에 대한 예의 없음'을 나타내는 증거일 수 있다. 문제의 글을 쓴 당직자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글을 썼던 것 같다. 나는 당 홈페이지에 답변을 올렸다. 문제의식은 공감하지만 글쓴이가 커피 심부름과 관련한 사실을 과장했다는 점을 예둘러 지적했다. 사실을 말하자면 매번 커피 심부름을 시키지는 않았다. 커피를 밖에 나가서 사온 것도 아니었다. 회의실 출입문 맞은편 계단을 한 층 내려가면 국회의원 식당 테이크아웃 커피 코너가 있다. 회의실 가는 길에 직접 커피를 사서 들고 간 때가 더 많았다. 그런데 진보정당은 회의를 오래 하는 관습이 있다. 회의가 길어지면 카페인이 더 필요하다. 커피 때문에 정회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누구한테든 문지를 보내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 매번 당대표 비서실장이 심부름을 하지는 않았다. 수행비서가 다른 일로 멀리 있을 때만 비서실장에게 문자를 보내 부탁했을 뿐이다. 나는 수행비서한테 커피를 부탁하는 것이 '사람에 대한 예의'에 어긋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수행비서는 10여 년간 이웃에 살면서 함께 당구도 치고 낚시도 다니고 밥도 먹는 관계였다. 그는 내가 작가로 활동하는 지금도 함께 일하는 '로드매니저다.' 일정과 자료를 관리하고 운전을 해주며 적어도 하루 한번 반드시 밥을 같이 먹는다. 나는 작업실에서 핸드드립 커피를 내릴 때 두 잔을 만든다. 하나는 내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몫이다. 예나 지금이나 역할은 달라도 서로를 존중하며 산다. 그렇지만 나는 그 당직자의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철저한 민주주의자라면 자기가 마실 커피를 손수 구하는게 옳다. 그래서 그 글을 보면서 혹시 내가 다른 곳에서도 권위주의적으로 보이는 언행을 한 적은 없었는지 자성해보았다. 그런 이야기를 답변삼아 쓴 다음 아메리카노커피를 마시는 것은 정치적 신념과는 무관한 취향의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 마실 생각이라고 했다 그 당직자가 말미에 한 주장 때문에 덧붙인 말이었다. 세 번째 밑줄 그은 문장이다 '아메리카노 커피를 먹어야 회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노동자 민중과 무슨 인연이 있는지 의아하다.'는 주장은 거센 풍파를 일으켰다. 주제와는 관계없는,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었을, 없었다면 더 좋았을 이 문장 때문에 글쓴이는 심한 비난과 조롱을 받았다. 온갖 이야기마다 나왔지만 정리하면 대충 이런 것이었다. 노동자 민중과 인연이 있는 사람은 아메리카노 커피를 마시지 말아야 하느냐. 믹스커피는 민중적이고, 아메리카노 커피는 반민중적이냐. 아메리카노 커피가 미국커피 맞냐. 시골 할아버지들도 모내기하다가 새참으로 커피 마시는데 무슨 헛소리냐. 비판의 초점은 '아메리카노 커피'와 '노동자 농민'을 연결한 것이었다. 그 당직자는 다시 글을 올려 아메리카노커피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권위주의적 행태를 비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를 이해하고 지지한 당원과 네티즌도 인터넷 언론과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렸다. 하지만 반론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문제가 된 글의 결함은 특별하게 아니었다. 글쓴이는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끌어들이는 '논점 이탈의 오류'를 저질렀다. 흔히 볼 수 있는 사소한 흠결 이었다.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의 주제는 '유시민 공동대표의 권위주의적 생활 태도'였다. 마지막 한 문장을 제외하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문장 하나로 인해 모든 게 엉망이 되고 말았다. 그가 마치

막까지 철저하게 주제를 의식하고 논리적 긴장감을 유지했다면 이렇게 썼을 것이며, 그랬다면 ‘아메리카노 논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스스로 사먹거나 타먹지 않고 아랫사람한테 매번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권위주의적 생활방식을 가진 사람이 과연 노동자 민중의 권익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썼으면 좋았을 것이다. ‘유시민 공동대표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다’는 주장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애초의 문제의식을 더 선명하게 드러낸다. 그런데 왜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감정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그는 ‘유시민 공동대표를 싫어했다. 그 감정에 휘둘린 나머지 논리적 맥락에서 벗어난 취향 고백을 해버린 것이다. 글쓴이는 평소 아메리카노 커피가 ‘미제국주의가 퍼뜨린 양키문화’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 사람의 자유다.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그것대로 따져보면 된다. 그러나 ‘유시민 공동대표의 권위주의적 생활태도를 비판하는 글에 ‘아메리카노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노동자 민중과 인연이 없다’는 주장을 덧붙인 것은 명백한 오류였다. 글 한 줄을 잘못 썼다는 이유로 비난과 조롱을 받은 것은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다. 이런 불행을 피하려면 냉정한 태도로 글을 써야 한다. 자기 자신의 감정까지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에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 논증의 미학을 실현하기 위해 지켜야 할 규칙이다. 말과 글로 논증하고 토론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을 이해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그렇지만 그 규칙을 지키면서 글을 쓰는 것은 훨씬 어렵다. 이해는 생각만 해도 할 수 있지만 실천은 삶으로 몸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살다 보면 몰라서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하지만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더 많다. 글쓰기도 그런 것이다

**Rule4 하나의 입장을 고수하라.**

논증이란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는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확실히 드러내야 한다. **여러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무 입장도 취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논증은 논점에 대한 주장을 담고 있고, 그 주장은 다른 주장들과 대립됩니다. 따라서 논증하는 글에는 자신의 주장이 맞고 다른 주장이 틀렸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좋은 예시**

나는 정승제의 개념 때려잡기가 가장 좋은 수학 강의라고 생각한다.

위 주장은 논증의 형식을 띄고 있기에 필연적으로 다른 입장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포함하며 다른 입장과 대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장을 펼친다면 ‘한석원의 알파테크닉이 가장 좋은 수학 강의다.’, ‘신승범의 수능적 해석이 가장 좋은 수학 강의다.’, ‘이창무의 개념의 정상이 가장 좋은 수학 강의다.’ 등의 주장을 비판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입장을 취했으면 도전적이고도 명쾌하게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옹호하고 다른 주장을 신랄하게 비판해야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논증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나쁜 예시**

나는 정승제의 개념 때려잡기가 가장 좋은 수학 강의라고 생각하지만, 한석원의 생각의 질서도 학생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석원의 생각의 질서를 듣기를 추천한다.

위 주장은 일견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좋은 논증이 아닙니다. 정승제의 개념 때려잡기가 가장 좋은 수학 강의라고 했다가 한석원의 생각의 질서도 좋으니 한석원의 생각의 질서를 듣기를 추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러 의견을 어설피게 취합한 것에 불과하기에 설득력이 없습니다. 과감하게 다른 의견은 버리고 하나의 입장을 취하십시오.

일단 처음 논증을 배울 때에는 교과서적 개념인 ‘중도적 입장’, ‘배려와 타협’, ‘균형 잡힌 시각’ 등은 잊는 게 좋습니다. 논증이란 자신의 견해가 다른 견해보다 옳다고 다른 이들을 설득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논증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편협한 시각을 정당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편협한 시각으로 일관된 글을 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편협한 시각을 가지라는 것은 하나의 입장을 철저히 고수하라는 뜻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편협한 시각으로 보이는 자신의 주장을 근거로써 정당화하고 다른 이들이 그것을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100% 옳은 주장은 없기에 자신의 주장이 틀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반드시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다른 입장을 철저히 비판하십시오.

**Rule5 단어는 일관되게 사용하라.**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인식시키고 싶다면 **단어를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단어를 혼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읽는 이로 하여금 주제에 몰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나쁜 예시**

(다)의 제시문은 **‘새로움’**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새로움은 **‘혁신’**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도적 개혁’**은 사람들을 계몽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선한 계몽’**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행동을 취하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신선함’**이야말로 사회 발전에 꼭 필요한 요소이다.

논리적 일관성을 담보하고 자신의 주장이 무엇인가를 읽는 이에게 확실히 각인시키고 싶다면 단어를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문장은 좋지 않은 논증의 예시입니다. 처음에 ‘새로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면, 끝까지 일관된 용어로서 논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위 예시에서는 ‘새로움’, ‘혁신’, ‘제도적 개혁’, ‘신선한 계몽’, ‘신선함’의 단어가 혼재되어 읽는 이로 하여금 혼란을 겪게 합니다. 이는 아주 좋지 못한 글쓰기 습관인데도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논술 답안을 작성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실제 적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개요를 작성하고 답안을 완성할 때 일관된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논증의 기술 中 (앤서니웨스턴著)**

**좋은 예시**

다른 문화에 대해 배우다 보면 인간의 **관습**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인간의 **관습**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보다 관용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다른 문화에 대해 배우다보면 보다 관용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경향이 있다.

**나쁜 예시**

다른 문화에 대해 배우다 보면 인간의 **관습**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사회적 관행**의 다양성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면 다른 삶의 방식을 새롭게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인류학을 공부하면 보다 관용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경향이 있다.

**Rule6 최대한 구체적 내용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라.**

추상적 표현은 자신감의 결여를 나타낸다. 그리고 읽는 이로 하여금 주제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한다.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서술하라.**

자신의 주장과 그 주장과 관련된 논점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리기 위해서는 추상적 표현을 지양하고 구체적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최대한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읽는 이가 글쓴이의 주장이 무엇이며 그와 관련된 논점이 무엇인가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논증은 자신의 견해로써 상대방을 설득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구체적 표현으로 최대한 친절하게 상대방을 설득해야 합니다. 구체적 표현은 읽는 이의 이해를 쉽게 하며 흥미를 끌게 하고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나쁜 예시**

저는 반장 선거에 나오게 된 김태수입니다. 저는 제가 반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반 학생들과 사이가 좋고 성적이 우수하며 청소를 잘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예시**

저는 반장 선거에 나오게 된 김태수입니다. 저는 제가 반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교성이 좋아 새롭게 반이 배정되자마자 반의 모든 학생들과 얘기를 나누며 연락처를 교환했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까지 전교 10등 밖으로 밀려난 적이 없기에 학업적인 측면에서도 반 학생의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이 끝난 후에 항상 칠판을 닦았으며, 쉬는 시간에도 교실 내의 더러운 곳을 쓸고 닦았기에 학급의 청결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만약 나쁜 예시처럼 논증을 한다면 ‘그래서 어찌라고? 나도 저런 얘기는 할 수 있겠다.’라는 반응이 돌아올지도 모른다.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장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추상적인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위 문장은 큰 공감은 불러일으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좋은 예시처럼 구체적으로 서술한다면 ‘맞아! 저 친구는 닳을 가리지 않고 학생들과 얘기하며, 전교 10등 안을 계속 유지할 정도로 성적이 우수하고, 항상 수업이 끝난 후에 칠판을 닦고 쉬는 시간에도 교실 내의 청결에 힘썼어. 저 친구가 반장이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라는 반응이 돌아올 것입니다. 구체적 내용으로써 상대방의 공감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쓰고 보니 자신이 반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훨씬 분명해졌습니다.

**나쁜 예시**

조나단은 우리가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주장은 옳지 않다. 과도하게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현실감각을 상실케 하기 때문이다.

### 좋은 예시

조나단은 낙관적 신념을 가질수록 육체적,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기에 우리가 자신의 능력을 실제 자신이 가진 능력보다 높게 평가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옳지 않다. 예를 들어 자신의 수학 성적이 80점인데도, 100점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이라고 평가하여 기존의 공부 방식을 유지한다면 다음 시험에서도 80점의 성적을 받아 결과적으로 불행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자신의 실력이 80점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나머지 20점을 채우기 위해 지금보다 더 노력한다면 다음 시험에서 더 좋은 성적을 받아 행복해질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을 고평가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위의 나쁜 예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잘 못 되었다. 첫째, 조나단의 주장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추상적인 수준에서 밝혔기 때문이다. 위 문장만 보고 읽는 이가 조나단의 주장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기는 어렵다. 둘째, 조나단의 주장이 옳지 않다는 주장의 근거가 추상적이다. 이러한 원론적 수준에서의 근거 제시는 읽는 이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가 어렵다. 차라리 아래의 예시처럼 구체적 예로써 논증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Rule7 중요한 것은 근거의 설득력이지 태도나 어조가 아니다.**

추상적 표현은 자신감의 결여를 나타낸다. 그리고 읽는 이로 하여금 주제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한다.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서술하라.**

계속 하는 말이지만 논증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확실히 제시해야 한다. 강경한 태도를 취한다고 해서 논증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단지 말의 어조를 이용하려고만 하지 말고 자신의 말에 대한 근거를 확실히 제시해야 한다.

**나쁜 예시**

“만약 집정자로 하여금 허락하게 한다 하더라도 조선인의 집회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오호라 동종동족끼리 원한을 맺어 서로 원수가 되어 망국의 지경이 되어도 후회하지 않으니 어찌 너무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 아니라. 이로 인해 전 조선인의 습관이 되어 마침내 단체성이 없는 인종이 되고 말았으니, 어찌 개탄할 만한 일이 아니며, 어찌 애석한 일이 아니라. 아아! 슬프도다!”

위는 1915.12.26. <매일신보>라는 신문에 실린 논설문의 일부입니다. 이 논설문을 쓴 사람은 장지연입니다. 그가 작성했던 ‘시일야 방성대곡’이 대부분의 한국사 교과서에 실려 있기에 우리는 흔히 그를 애국자로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는 후에 철저한 친일파로 변모하여 일제의 폭압적 정치를 찬양하는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각설하고, 위 문장의 논증력만을 평가해보겠습니다. 위 문장의 주장은 ‘집정자가 허락한다고 해도 조선인들은 단체성이 없어 집회를 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밝힌 이상 이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실린 단어들만 곳곳에서 보일 뿐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는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동종동족끼리 원한을 맺고 서로 원수가 되어 망국의 지경이 되었다고 하는 것인가?’, ‘정말 원수가 되어 망국의 지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조선인의 습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단체성이 없는 인종은 집회를 열 수 없는가?’

집정자가 허락한다고 해도 조선인들은 단체성이 없어 집회를 열 수 없다.’라는 주장을 논증하려면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확실한 근거를 제시했어야 했다. 위 논증은 감정과 어조, 태도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논술이 원하는 것은 주장에 대한 구체적 근거이지 말의 어조나 글쓴이의 태도가 아니다.

**Rule8 논술은 문학이 아니다. 최대한 간결하게 표현하라.**

장황하고 현학적 문장은 자제하라. 논술은 문학이 아니다. 자신의 주장과 그에 대한 근거만 간략하게 제시하면 된다. **복잡한 문장은 읽는 이를 헤매게 할 수 있다.**

논리적 글에서 문장은 무조건 간결해야 합니다. 장황한 문장은 읽는 이를 복잡한 단어들 속에서 헤매게 할 뿐입니다. 간결한 문장으로 읽는 이를 주장과 근거라는 목적지에 쉽게 이끌 수 있도록 합시다.

**나쁜 예시**

마르크스는 명석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평이 있으나 자기주장이 강하고 독선적인 면이 있었다고 한다. 술과 사교생활을 좋아해 모든 친구들과 불화를 일으켜가며 논쟁을 벌이기 일쑤였고, 술집이 운집된 골목에서 술집을 모두 돌아다니다가 밤을 새우는 일도 허다했다고 한다. 그랬기에 마르크스를 존경하는 사람은 많았어도 친우관계는 원만하지 않았던 것 같다.

**좋은 예시**

마르크스는 사상적 측면에서는 존경받았지만, 독선적 성격 때문에 인간관계는 좋지 못했다.

**논증의 기술 中 (앤서니웨스턴著)**

**나쁜 예시**

과거에 지도자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과 다르게 노역의 수행이 우선적인 자기 역할인 사람들의 주된 행동양식은 지도자들이 부과하는 의무에 응하는 것이었던 것 같다. 수행해야 할 의무는 그 공동체 및 그 하위단위에서 차지하는 지위에 따라 다양하게 부과됐다. 오늘날 이와 가장 비슷한 것은 일반 시민들이 수행하는 군복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집트 관료체제의 지도자는 법에 정해진 의무를 공동체 구성원들에 부과하기 위해 특별한 비상상태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좋은 예시**

고대 이집트에서는 평민들이 노역 징집에 응해야 했다

**Rule9 애매하거나 모호한 표현은 사용하지 말라.**

애매한 문장은 그 다의성 때문에 읽는 이에게 혼란을 주며, 모호한 문장은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힘들어서 읽는 이에게 혼란을 준다. **따라서 애매하거나 모호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먼저 애매함과 모호함을 구별해봅시다.

애매하다는 것은 하나의 표현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애매한 표현은 두 가지 이상의 의미 중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혼란을 야기해서 읽는 이를 힘들게 합니다. 이는 글의 신뢰도 상실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논술에서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고 하나의 표현이 하나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쁜 예시**

나는 영화보다 초콜릿을 더 좋아한다.

**좋은 예시**

나는 영화가 초콜릿을 좋아하는 것보다 더 초콜릿을 좋아한다.

나는 영화를 좋아하는 것보다 초콜릿을 더 좋아한다.

**나쁜 예시**

나는 영화보다 초콜릿을 더 좋아한다. 영화는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풀곤 하지만 나는 스트레스를 초콜릿의 달콤함으로 이겨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애매한 표현을 구사했어도 문맥을 통해 다의성이 해소된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글의 전후문맥을 통해 애매한 표현을 해소하는 글쓰기 방식에 익숙해진다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서술방식이 습관화되면 글의 핵심적인 부분에서도 애매한 표현을 구사하여 다의성의 문제를 불러 일으켜 논증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맥을 통해 애매함을 해소하려고 하지 말고, 명확하고 정확한 문장으로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모호하다는 것은 하나의 표현이 의미가 불분명하여 읽는 이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거나, 읽는 이에 따라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제멋대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논증은 자신의 주장과 그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작업이므로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나쁜 예시**

원효는 모나지 않은 성격을 가졌기에 친서민적이었다.

위의 정의에 따를 때 ‘모나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모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호한 근거를 통해 친서민적이라는 주장을 한다면 이 논증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호한 표현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지만, 모호한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다른 단어와 문장으로써 최대한 모호성을 제거해주어야 합니다.

**좋은 예시**

원효는 상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천민들과도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자신에 대한 욕설도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 등의 모나지 않은 성격을 가졌기에 친서민적이었다.

**Rule 10 한 문단에는 하나의 주제만을 담아라.**

한 문단에 하나의 주제를 담는 것은 **형식적 완결성을 담보한다.**

글은 여러 개의 문단으로 구성됩니다. 글 전체의 주제를 대주제라고 하고, 글을 구성하는 한 문단의 주제를 소주제라고 합니다. 대주제든 소주제든 하나의 주제만을 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전달하고자하는 바를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문단이나 하나의 글에 두 가지 이상의 주제가 있으면 글의 구성상의 완결성이 떨어지기에 읽는 이에게 신뢰를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논리적인 글을 쓰기 위해서는 문단을 효과적으로 구성하고 한 문단에는 하나의 주제만을 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채점자는 일견 단락 구성의 완성도만을 보더라도 학생이 글을 제대로 썼는지 평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좋은 논증은 좋은 구성에 좋은 내용을 담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따라서 문단 구성이 엉망이면 좋은 논증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문단 구성 능력과 논증능력은 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쁜 예시**

통일을 위해서는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 연방제 국가를 구성하여 하나의 국가에 두 개의 자치권을 부여함으로써 과도기적 단계를 밟은 후 총 투표를 통해 완전한 국가를 건립하는 것이 좋다. 독일에서 통일 후 후유증이 컸던 이유는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는 급진적 통일을 이룩했기 때문이다. 물론 공산주의는 폭력성을 내포하고 있는 체제이므로 그와 타협하여 통일을 도모한다는 것이 위험하긴 하지만, 민족의 통일이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해서는 그러한 위험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글은 ‘통일을 위해서는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며, 그 방안으로 연방제 국가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논증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위 문단이 두 개의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주장은 ‘통일을 위해서는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며, 그 방안으로 연방제 국가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주장은 ‘통일을 위해서는 공산주의가 내포하는 위험성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한 문단에 두 가지 주장(주제)를 넣으면 제대로 된 논증을 하기 어렵다. 두 주장에 대한 근거를 한 번에 제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좋은 예시**

통일을 위해서는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 연방제 국가를 구성하여 하나의 국가에 두 개의 자치권을 부여함으로써 과도기적 단계를 밟은 후 총 투표를 통해 완전한 국가를 건립하는 것이 좋다. 독일에서 통일 후 후유증이 컸던 이유는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는 급진적 통일을 이룩했기 때문이다.  
물론 공산주의와 선불리 타협하여 연방제 국가를 구성하자는 것이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다. 하지만 통일이 가져올 민족의 화합, 정체성의 회복, 경제적 파급효과, 유럽으로의 진출의 교두보 확보 등의 긍정적 결과를 고려하면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통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역으로 한 문단에서 다루어야 할 하나의 주제를 여러 문단에 나누어서 담는 경우도 지양해야 한다. 복잡한 문장과 현학적 표현이 사용되면 이런 오류를 범하곤 한다. 따라서

Basic편에도 나온 내용이지만 개요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단락과 핵심어를 고려하여 한 문단에는 하나의 주제만을 담아야 한다.

**Rule 11 결론의 신뢰성은 전제의 신뢰성에서 출발한다.**

**전제의 신뢰성**을 항상 고려하라.

형식적으로 전제에서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을 착실히 밟았다고 해도 결론의 근거가 되는 전제가 합리성이나 설득력이 없다면 결론 또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결론은 전제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제의 신뢰성을 항상 생각하며 논증을 시작해야 합니다.

**나쁜 예시**

남자는 모두 자신의 욕망을 위해 여성을 이용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제임스도 곧 나를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남자는 모두 자신의 욕망을 위해 여성을 이용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입니다. 사귀던 남성에게서 철저히 이용당하고 버려진 여성이라면 참이라고 느낄 수 있는 전제이지만 모두에게나 적용되는 전제입니까? 합리성, 이성적, 직관적으로 판단하면 참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전제입니다. 이 논증을 전개한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애써 부인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것이 자신에게는 통용될 수 있는 논리인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이에게까지 모두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논증에서 이기려면 다른 주장에 의한 비판에서도 이겨야 합니다. 따라서 합리성을 갖춘 신뢰성 있는 전제에서 시작하여 논리를 전개해나가십시오. 전제의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면 새로운 전제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Rule12 주제를 좁혀라.**

공자는 자신의 사상을 '인'으로 표현했고,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로 표현했다.

주제를 좁히지 않고는 글쓰기가 어렵습니다. 막연하게 범위를 잡아서는 쓸거리가 생각나지 않는다. 쓴다고 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자신에게 가까운 것이나 남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으로 주제를 좁혀 쓰는 것이 요령입니다. 허황된 욕심으로 거창한 주제에 매달리면 글이 제대로 써지지 않습니다. 해외 시찰을 다녀와 보고서를 쓰는 경우 자기 회사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항이나 관심사를 집중적으로 쓴 뒤 나머지는 간단하게 언급하면 됩니다. 만약 시찰에서 본 것을 모두 다 쓴다면 지나치게 양이 길어진다. 전체 내용을 줄여서 쓴다고 해도 수박 겉핥기식의 글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를 다루면 읽는 사람에게 별반 구체적으로 와 닿는 내용 없이 그저 그런 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Rule12 군더더기를 없애라

논술은 정해진 분량이 있는 시험이다. 쓸데없는 표현을 자제하자.

군더더기란 없어도 되는 말을 뜻한다. ‘~해’를 ‘~하는 과정을 통해’라고 하는 등의 군더더기는 아무 의미 없이 글을 늘어지게 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만들고 긴장감을 떨어뜨린다. ‘~관한’, ‘~대한’ 등도 마찬가지다. 눈에 거슬리는 군더더기를 빼기만 해도 훨씬 깔끔하고 세련된 문장이 된다. 군더더기가 있느냐 없느냐는 글 쓰는 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한국은 투자자 보호에 관한 법과 제도에 있어 중요한 취약점이 있으며, 외국인들은 우리의 거시경제 정책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있다”에서 ‘~에 관한’, ‘~에 있어,’ ‘~에 대해’는 불필요한 말이다. “한국은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과 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으며, 외국인들은 우리의 거시경제 정책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가 정상적인 표현이다.

### Rule13 수식어를 절제하라

논리에 맞는 명료한 글을 쓰려면 불필요한 말부터 버려야 한다.

**의미 없는 말들 때문에 문장이 늘어지고 지루해진다.**

“현재처럼 가격이 아주 불안정한 상황에서 다른 파트너를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기 때문에 기존 업체와의 제휴 협상에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고 있다”에서처럼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아주’, ‘많이’, ‘여러 가지’, ‘가능한 한’ 등 수식어를 마구 덧붙이는 경향이 있으나, 수식어가 많으면 문장이 늘어지고 읽기 불편해진다. 꼭 필요한 수식어만 남기고 나머지는 빼야 깔끔하고 부드러운 문장이 된다.

수식어를 지나치게 사용하면 산만해져 글의 명료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말하는 것과 비슷해져 세련된 맛이 없어진다. 개인적 가치판단이나 감정이 개입된 수식어가 사용됨으로써 객관성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여러 개의 수식어가 한꺼번에 나열되거나 긴 수식어가 올 경우에는 따로 떼어 내 별도의 문장으로 만드는 것이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다.

#### Rule14 피동형보다 능동형을 써라

영어의 영향으로 능동형보다 피동형 표현을 더 자주 쓰는 경향이 있다. **동사의 무의미한 변형은 뜻을 왜곡시킬 수 있고 글의 명확성을 떨어뜨리므로, 되도록 능동형으로 표현한다.**

영어에서는 동사의 유형을 바꿈으로써 능동문과 피동문이 자유롭게 구사되고, 무생물을 주어로 쓰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말에서는 피동형을 쓰면 문장이 어색해질 뿐 아니라 행위의 주체가 잘 드러나지 않아 뜻이 모호해지고 전체적으로 글의 힘이 떨어집니다. 불가피하거나 완곡하게 표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능동형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피동형을 쓰면 무엇보다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피동형을 심하게 사용하면 조심스러운 듯하고, 완곡하다 못해 도망가는 듯한 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개척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현지 진출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에서는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피동형보다 ‘검토해야 한다.’는 능동형이 힘을 더할 수 있습니다.(이때 주어인 ‘현지 진출이’를 ‘현지 진출을’로 바꿔야 하는 것도 잊지 말자). ‘보여지다’, ‘~되어지다.’ 등 불필요하게 이중 피동을 사용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Rule15 상투적인 표현을 피하라**

**상투적인 표현을 쓰면 무엇보다 글이 늘어지고 읽는 맛이 떨어진다.**

상투적인 표현이란 관에 박은 듯한 말투나 흔해 빠진 표현을 말한다. 옛날부터 늘 써 온 표현으로 고리타분하게 느껴지는 말을 가리킨다. 상투적인 표현을 쓰면 무엇보다 글이 늘어지고 읽는 맛이 떨어진다. 이런 것은 늘 들어 온 말이라 마음속에 오래 남지 않을뿐더러 읽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 또 자신의 생각 없이 그저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늘어놓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라 할 것이다’, ‘~라 아니할 수 없다’, ‘~를 연출했다’, ‘~결과가 주목된다’ 등이 흔히 쓰이는 표현으로, 신선감이 떨어지며 읽는 이를 싫증나게 만든다. ‘~에 다름 아니다’, ‘~을 요한다’, ‘~에 가름한다’, ‘~에 값한다’, ‘~에 틀림없다’ 등은 일본식 표현일 뿐 아니라 말을 늘어뜨려 읽는 맛을 없앤다. 특히 글의 첫머리에 자주 나오는 ‘살펴보기로 하자’, ‘알아보기로 하겠다’,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등의 표현도 진부해 글을 읽고 싶은 마음을 떨어뜨린다.

## Rule16 쉬운 말로 써라

자기 생각을 정확하고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쉬운 말로 써야 한다.

쉽고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내용을 굳이 어렵고 복잡하게 표현함으로써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자기 생각을 정확하고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쉬운 말로 써야 한다. 전문용어도 가능하면 쉬운 말로 풀어쓰는 것이 좋다. 특히 어려운 한자어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어려운 한자어를 쓰면 문장이 무겁고 딱딱해진다. 쉬운 단어로 표현이 가능한데도 굳이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해 글을 딱딱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 “협상 팀은 마라톤 회의를 끝내고 나왔으나 일체의 언급을 회피하고 뿔뿔이 흩어졌다”에서 ‘일체의 언급을 회피하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로 쉽게 바꾸는 것이 훨씬 부드럽다.

**Rule17 명사를 지나치게 나열하거나 단어를 토막 내지 마라.**

◆ 명사의 지나친 나열

명사를 너무 나열하면 이해하기 어려워질 뿐 아니라 글의 리듬감도 뚝 떨어진다. 작은 공간에서 많은 양의 정보를 보여 주어야 하는 제목이나 프레젠테이션 등의 경우 유용할 때가 있지만, 일반적인 글에서는 명사를 지나치게 나열하지 말고 문장성분을 온전히 갖추어 서술성을 살려야 한다.

- 수정 전 : 중장기 회사 발전 방안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 수정 후 : 중장기 회사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 단어를 토막 내는 것

“투기가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에서 보듯 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두 단어인 것처럼 분리해 쓰는 일이 흔하다. ‘근절되다’가 한 단어이므로 “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로 해야 정상적이다. 독립된 하나의 단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어를 토막 내 두 개로 분리함으로써 공연히 글이 길어지고 읽기 불편하다.

- 수정 전 : 사업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
- 수정 후 : 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Rule18 비판을 기다리지 말라.**

논증을 위해 하나의 입장을 취했다면 다른 입장을 비판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이는 자신의 입장 또한 다른 입장에 의한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른 이로부터 받을 수 있는 비판을 고려하면서 논지를 전개해나가라.**

항상 자신의 논리를 의심하고 강하게 비판해야 합니다. 논증은 하나의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기에 필연적으로 다른 입장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포함합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는 자신의 입장 또한 다른 입장에 의한 비판이 대상이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논증에서 가장 강하게 비판할 대상은 어떠한 다른 입장도 아니고 바로 자신의 입장입니다. 자신과 반대되는 입장의 설득력을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대되는 입장의 전제와 결론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애써 논증을 다 해버린 후에 생각지도 못한 공격을 받게 된다면 자신의 주장의 신뢰성은 다시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의 주장에만 파묻혀 시야를 좁히지 마십시오. 먼저 반대 입장의 주장을 고려하여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공격하십시오. 그리고 이를 각각논의로 활용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재점검하는 용도로 사용하십시오. 이것은 예방접종처럼 자신의 주장을 더 단단하게 해줄 것입니다.

좋은 예시	
주장	보편적 복지를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자들은 기득권의 지배논리에 포섭당한 것이다. 보편적 복지는 자본주의사회의 폐해인 형평성 문제를 수정, 보완해주며 누구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준다.
기각논의	물론 보편적 복지는 세금 부담을 가중시켜 생산성의 하락을 가져온다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으나, 생산성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이 자본주의 체제를 지켜나갈 수 있는 방어막이 되기에 이는 옳지 않다.

자신의 주장을 비판할 기준은 이미 모두들 배웠을 것입니다. Basic편의 비판 파트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그 내용을 아래에 다시 싣겠습니다.

예상되는 결과	주장이 실현되었을 때 나타날 결과로써 비판
시의 적절성	주장이 현재에도 통용될 수 있는 것인가를 기준으로 비판
세분화	주장을 여러 개로 나누어 설득력이 약한 주장을 공략
구체화	주장을 구체화한 후 비판
반례 찾기	주장의 완결성을 깨뜨릴 수 있는 사례를 찾아 비판
범위	주장의 범위가 너무 넓거나 좁은 경우 이를 비판

<b>1) 예상되는 결과</b>	
<b>주장</b>	원자력 발전은 경제적 효율이 다른 수단보다 높기에 확대되어야 한다.
<b>비판</b>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사건에서 볼 수 있듯 원자력 발전은 사고 발생 시 그 위험성이 다른 수단보다 훨씬 높으므로 그 확대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b>주장</b>	오로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가히 천문학적이며, 통일은 외세에 의한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여 세계화 시대의 리더로 거듭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b>비판</b>	통일의 방법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그저 통일이 필요하다고만 말하고 있다. 하지만 너무 급진적인 통일은 오히려 심한 민족 내부 분열을 가져올 수도 있다.
<b>2) 시의 적절성</b>	
<b>주장</b>	휘발유 자동차는 매연을 많이 발생시키기에 보다 친환경적인 수소 자동차를 널리 보급해야한다.
<b>비판</b>	수소자동차는 기술적 보완이 필요한 단계여서 그 가격이 매우 비싸므로 당장 이를 널리 보급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b>주장</b>	현재 우리의 사법은 일제강점기시대의 민법을 이어받은 것이기 때문에 바로 내년부터 새로운 대한민국 민법전을 적용하여야 한다.
<b>비판</b>	일제강점기의 잔재 청산이라는 목적에 따라 민법을 개정하여 적용하는 것에는 타당성이 있으나, 기존의 법률적 토대 위에서 행해졌던 사인들 간 행동양식을 포함하는 법적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새로운 민법은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가야 한다.
<b>3) 세분화</b>	
<b>주장</b>	①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권력이 된다. ②시간을 살 수 있으며, ③건강 또한 살 수 있다. ④그리고 다른 이를 굴복시킬 수도 있다.
<b>비판</b>	돈으로 모든 이를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명예를 위해 자신의 이익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하곤 한다.
<b>주장</b>	물론 서양오랑캐들의 힘이 막강하여 개화를 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 기술을 담는 것은 동양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동양적 사상에 따라 생활하고 사고하여왔으며, 동양의 철학은 서양 철학보다 수준 높기 때문이다.
<b>비판</b>	주된 논지인 동도서기론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종된 논지인 동양 철학이 서양 철학보다 수준이 높다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어 설득력이 없다.

<b>4) 구체화</b>	
<b>주장</b>	어떤 결과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원인이 존재하는데, 원인과 결과의 필연성은 개별적인 사례들을 통해 일반화될 수 있다. 가령, A라는 사람이 스트레스로 병에 걸렸고, B도 스트레스로 병에 걸렸다면 이런 개별적인 사례들로부터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다.’라는 일반적인 인과가 도출된다. 이때 개별적인 사례에 해당하는 인과를 ‘개별자 수준의 인과’라 하고, 일반적인 인과를 ‘집단 수준의 인과’라고 하는데, ‘집단 수준의 인과’는 원인과 결과의 필연성을 지닌다.
<b>비판</b>	모든 일이 항상 인과관계에 따라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자연적 법칙과 우연적 요소에 따라서도 세상은 움직인다. A가 스트레스를 풀려고 과음과 폭식을 하여 면역력이 낮아진 상태였다면, B가 이미 발병요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병이 걸리기 전 회사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과연 스트레스가 병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이 때로는 우연적 요소에 의한 것일 수 있다.
<b>주장</b>	21세기는 용서와 화합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 인류의 역사가 발전할수록 서로를 인정하는 미덕을 가져야하기 때문이다.
<b>평가</b>	추상적인 주장만 나열하고 있어 왜 인류의 역사가 발전할수록 서로를 인정하는 미덕을 가져야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그리고 용서와 화합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위성이 깃든 주장인데, 그 근거로 나온 뒤의 문장도 당위성이 깃들어있기 때문에 이는 좋지 않다. 차라리 그 근거로 ‘지난 세기의 두 차례 세계대전은 경쟁과 시기가 인류를 얼마나 처참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이다.’ 정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b>5) 반례 찾기</b>	
<b>주장</b>	사람이란 팔이 두 개, 다리가 두 개이며 직립하여 다니는 동물이다.
<b>비판</b>	갯난아이는 기어 다니는데, 이는 사람이 아니란 말인가.
<b>6) 범위</b>	
<b>주장</b>	조선인들의 특징은 편 가르기에 있다. 허구한 날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로 편을 가르며 서로 편을 갈라 싸우며 분쟁을 일으킨다. 이는 반도라는 지리적 특성에 의한 것이다.
<b>비판</b>	조선의 봉당정치의 폐해가 심했던 것은 사실이나 정치적 이합집산에 따라 편을 갈라 서로 대립하는 것은 비단 조선에서만 일어났던 현상이 아니라 어느 시기, 어느 나라에서나 일어났던 현상이다.
<b>주장</b>	모든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신이 오직 인간에게만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이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b>비판</b>	합리적 사고를 기대할 수 없는 아이나 심신상실자는 책임능력의 예외가 되지 않을까.
-----------	---

**Rule 19 반대견해를 자세히 서술하여 그에 대응하라.**

인과관계는 필연성을 바탕으로 한다. **원인과 결과가 필연성을 갖고 있는지를 검토하라.**

반대견해를 자세히 서술한 후 그에 대한 반론을 미리 제기하는 것은 채점자에게 자신의 견해가 더 설득력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학생이 그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해보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견해를 자세히 서술하십시오.

**[논증의 기술 中 (앤서니웨스턴著)]**

**나쁜 예시**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통일이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옳지 않은데~

글쎄, 그런데 어떤 종류의 위험을 말하는 것인가? 그러한 위험이 왜 발생한다는 것인가? 반대견해의 배후에 깔려 있는 근거들을 적어라. 시간을 들여 반대논증 전체의 윤곽을 그려내라. 반대논증의 결론만을 언급하고 서둘러 당신의 논증을 옹호하려고만 하지 말라.

**좋은 예시**

학생교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위험을 안겨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내가 보기에 그러한 우려는 해외로 나가는 학생들은 어쨌든 대부분 젊은이이고 세상일에 밝지 못하여 속임을 당하거나 상해를 입기 쉬우며, 특히 생활여건이 열악하고 안전장치와 보호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는 더욱 그럴 수 있다는 점에 일부 기인하는 것이다. 외국인에 대한 공포와 불신이 테러리즘에 대한 두려움과 결합하면서 고조되고 있는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학생들의 생명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그런 우려가 더욱 예민해질 수 있다. 교환학생이 치열한 지역적 권력게임의 볼모가 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서양인 여행자가 해외에서 때로 테러리스트들의 표적이 되는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이 교환학생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당연히 해야 한다. 이런 우려는 진지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우려에 똑같이 진지하게 대응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제는 반대 견해가 정확하게 무엇 인지가 분명해졌고, 당신은 그 반대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위험은 국경을 넘는 데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해외의 다른 나라들 가운데 미국의 도시보다 더 안전한 곳도 많다. 보다 복잡한 대응의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적어도 미국사회 전체를 놓고 보면 문화적 외교사절을 해외에 보내지 않는 것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국제적 인오해와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증오로 인해 세계가 모든 미국인에게 더 위험한 곳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교환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창의적인 방식도 틀림없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만약 당신이 반대견해의 배후에 깔려 있는 논증을 자세히 서술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당신은 방금 열거한 기능성들에 대해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이고, 당신이 반대견해를 언급하긴 했더라도 당신의 독자들은 그 반대견해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을 것이다. 반대견해를 자세히 서술하면 당신의 논증이 더 풍부한 내용을 갖출 수 있다.

**Rule20 두괄식구성을 취하여 서론에서 결론을 제시하라.**

논리적 글에서는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명확하고도 간결하게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서론에서 호기심을 유도하는 사례나 격언 또는 명언을 제시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불필요하다. **무미건조하게 두괄식으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바로 제시하라.**

글은 보통 서론-본론-결론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론에서 결론(글의 구성상 결론이 아닌 내용상의 결론을 의미)을 밝히는 글을 두괄식, 본론에서 결론을 밝히는 글을 중괄식, 결론에서 결론을 밝히는 글을 미괄식이라고 합니다. 각 학교의 채점기준을 고려해볼 때 논술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두괄식으로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채점기준과 별개로 수많은 시험지 중에서 자신의 시험지를 빛나게 하려고 해도 두괄식이 좋습니다. 학생들의 생각과는 달리 채점자들은 학생들의 답안에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충대충 보고 함, 불을 결정한 후 재검토를 하는 식으로 채점을 합니다. 따라서 채점자의 시선을 묶어두려면 문제가 묻고자하는 바를 서론에서 빨리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나쁜 예시**

오는 2015 아시안컵 개막전을 맞아 국민적 관심이 호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대표팀은 유럽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와 기성용 선수의 합류로 아시안컵 역사상 최강의 전력을 갖췄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슈틸리케 감독은 선수 네임벨류가 아닌 선수의 능력만을 평가하여 선발 라인업을 설정할 것이라고 천명하였습니다. 저희 방송국에서 예상한 선발 라인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좋은 예시**

저희 방송국에서는 2015 아시안컵 개막전을 예상했는데 그 예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쁜 예시에 해당하는 문장은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논술에 있어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논술에서는 위와 같이 자신의 주장을 빠르게 제시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배경이나 주장의 맥락 따위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주장과 근거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처음에 결론을 제시하지 않으면 글을 많이 써보지 않은 학생들은 뒤로 갈수록 글의 주제가 흐려질 염려가 있습니다. 아래의 예시를 보며 이러한 사항을 확인해보십시오.

**논증하는 글쓰기의 기술(채석용 著)**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한 홍석천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생각하게 했다. 그는 타의에 의해 동성애자임을 밝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불행하게도 역시 타의에 의해 방송에서 퇴출되었다. 과연 이런 처분은 정당한가? 여기서 동성애에 대한 우리의 편견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과연 이 글의 결론이 어떨 것 같은가? ‘편견’이라는 단어와 홍석천에 대한 동정적인 태도 등으로 미뤄 ‘동성애자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벗자’라는 식의 결론이 예상될 것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 글의 결론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우리의 편견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였다. 물론 사례 글의 결론 자체를 맞출 수는 없다. ‘동성애자들에 대

한 편견은 현실이다'라는 주장 역시 탄탄한 논증 과정을 거쳐 정당하게 주장될 수 있는 관점이다. 하지만 문제는 일관되지 않은 글의 논조이다. 서론에서는 마치 동성애자들에 대한 편견이 잘못된 것처럼 묘사한 다음, 결론에서는 이런 묘사와 정반대의 내용으로 마무리 지었다. 일관된 논조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논증적 글로서의 자격이 없다. 장황하게 서론을 쓰려 애쓸수록 일관된 논조를 유지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 애초에 '동성애자들에 대한 편견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 논증하겠다.'라고 서론에 썼다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논술은 논증적 글쓰기입니다. 때론 멋있고 감동을 주는 문장과 기법도 필요하지만, 논술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논증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써야 할까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아마 논술을 직접 써 본 적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논술에는 써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장황한 서론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쓰는 것입니다. <유기적 세계관이 기계론적 세계관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 답을 쓰면 됩니다. 가령 <유기적 세계관은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 논거, 근거를 작성하면 됩니다. 왜 유기적 세계관은 대안이 될 수 없는가? <그것은 비과학적이며 따라서 실재의 구조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의 논증을 구성하면 그것이 바로 논술이 됩니다.

The 논술  
ADVANCED

정민출판  
연인

**Rule21 연역논증은 필연성을 바탕으로 한다.**

연역논증은 전제가 참이라면 필연적으로 결론도 참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반대로 전제가 거짓이라면 필연적으로 결론도 거짓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연역논증은 모 아니면 도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역을 사용할 때는 전제의 신뢰성을 항상 검토해봐야 한다.

**연역의 정의**

연역(演繹, deduction)이란 이미 알고 있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명제를 전제로 하여 명확히 규정된 논리적 형식들에 근거해 새로운 명제를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추리의 방법이다. 연역을 일반적인 사실이나 원리에서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연역의 대표적 사례 - 삼단논법**

모든 사람은 죽는다.  $A \rightarrow B$  (대전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C \rightarrow A$  (소전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C \rightarrow B$ 이다. (결론)

연역은 형식적 논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제를 통해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전제의 신뢰성은 판단하지 않고 참이라 가정한 상태에서 논리의 형식적 타당성만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역논증은 전제가 참이라면 그 과정을 통해 나온 결론은 필연적으로 참이고, 전제가 거짓이라면 그 과정을 통해 나온 결론은 필연적으로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연역논증에서는 중간은 있을 수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타당한가의 여부만 따지기 때문에 그 논증의 과정에 '타당하다' 혹은 '타당하지 않다'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예시**

모든 인간은 영원히 산다.  
원아이드잭은 인간이다.  
따라서 원아이드잭은 영원히 산다.

위 연역논증은 '타당합니다.' 연역논증에서 '타당하다'라는 의미는 형식에 맞게 올바른 과정을 통해 논증을 전개했음을 의미합니다. 대전제인 '모든 인간은 영원히 산다.'에서 인간에 포함되는 원아이드잭을 소전제로 삼아 '원아이드잭은 영원히 산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논증은 내용적으로 볼 때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제가 허황되기 때문입니다. 직관적, 이성적, 상식적으로 판단건대, '모든 인간은 영원히 산다.'라는 전제는 거짓입니다.

연역논증은 전제의 참, 거짓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참이라고 가정하여 논리의 형식적 타당성만을 따지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전제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역논증과정에서는 이를 따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올바른 전제, 신뢰성 있는 전제에서 시작하려고 하십시오.

**Rule22 연역논증은 지식을 확장하지 못한다.**

연역논증은 전제로부터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이므로 일정한 명제를 출발점으로 한다. 그런데 명제를 통해 도출되는 결론은 모두 전제 안에 포함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 사실이나 원리에 해당한다. 이처럼 연역은 결론의 내용이 이미 전제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진리보존적(truth-preserving) 성격을 지닌다. **연역은 전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적 지식의 확장을 가져다주지는 못하며, 이미 전제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명확하고 새롭게 도출해낼 뿐이다.**

**예시**

백조는 희다.  
알렉스는 백조이다.  
알렉스는 희다.

연역논증은 전제를 출발점으로 설정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논증방식입니다. 명제를 통해 도출되는 결론은 모두 전제 안에 포함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 사실이나 원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역논증에 의한 결론은 절대 전제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연역논증을 ‘진리보존적’이라고 합니다.

위의 예에서 전제는 ‘백조는 희다.’입니다. 그 전제에서 시작하여 도출된 결론은 ‘알렉스는 희다.’입니다. 전제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명제를 담고 있고, 결론은 그 명제에 포함되는 구체적, 개별적 명제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역논증은 일반적, 추상적 명제에서 구체적, 개별적 명제를 이끌어낼 때 사용합니다.

연역논증은 논리적 일관성과 체계성을 가져다줍니다.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도 널리 적용되어 나타납니다. 어떤 행위가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윤리적 판단들은 대부분 연역적 방법에 기초해 나타납니다. 개별 행위의 유형을 포괄하는 보편적 규범에 기초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Rule23** 연역논증의 전제는 귀납논증에 의해 도출되기도 한다.

모든 연역의 출발점이 되는 **최초의 명제는 결코 연역에 의해 도출될 수 없다.**

**예시**

백조는 희다.

알렉스는 백조이다.

알렉스는 희다.

‘백조가 희다.’는 명제는 백조들의 깃털의 색을 관찰한 결과에서 도출된 것입니다.

**예시**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사람은 죽는다.’라는 명제는 사람들의 죽음을 관찰한 결과에서 도출된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 본대로 연역은 지식을 확장하는 역할은 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연역의 출발점에 되는 최초의 명제는 인간의 다양한 경험이나 실천 등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귀납적 논증을 통해서 형성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연역과 귀납은 뗄 수 없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양 방법을 생각하며 논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Rule24 연역논증은 일반적 명제에서 구체적, 개별적 명제를 이끌어낼 때 사용한다.**

두 제시문 중 **하나의 제시문이 일반적 명제**를 담고 있고, **다른 하나의 제시문이 구체적 인 자료나, 개별인물의 행동**을 담고 있다면 연역논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앞에서 살펴 본대로 연역논증은 전제를 출발점으로 설정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논증방식 이기에 결론의 내용은 결코 전제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연역논증의 ‘진리보존 적’ 성격 때문에 연역은 일반적 명제에서 구체적 명제를 이끌어낼 때 사용하는 것이 좋습 니다. 구체적으로는 논술시험에서 한 제시문이 일반적 명제를 담고 있고, 다른 하나의 제시문이 구체적 자료 혹은 개별인물의 행동을 담고 있다면 이 때 연역논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b>2015 연세대 모의 인문</b>	<b>사회규범이라는 관점에서 제시문 (다)를 참조하여 제시문 (라)에 서 제시된 A국가와 B국가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시오.</b>
---------------------------	--

**제시문 (다)**

가끔 유명 연예인이나 부유층 자녀 등이 대마초(일명 마리화나)를 흡입하여 뉴스에 보도되곤 한다. 우리나라에서 대마초는 마약류로 분류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받는다. 이 법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마약류 수출입업자 · 제조업자 · 원료 사용자 · 관리자 ·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 또는 의료업자)가 아니면 대마초를 재배 · 소지 · 소유 · 수수 · 운반 · 보관 ·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반면 네덜란드에서 ‘커피숍’이란 합법적으로 대마초를 피울 수 있는 ‘마리화나 카페’를 의미한다.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카페’라고 쓴 간판을 찾아야 한다. 커피숍은 1990년대 중반 전성기를 구가하며 1,400여 개에 이르렀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서 보수화된 네덜란드 사회 분위기에 밀려 700곳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1930년대까지 미국의 거의 모든 주들은 의학용 목적 이외의 이유로 마리화나를 재배, 유통, 판매, 이용하는 것을 불법화시켰다. 하지만 마리화나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2012년 콜로라도 주와 워싱턴 주는 주민투표를 통해 마리화나를 다시 합법화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내 다른 지역으로 계속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제시문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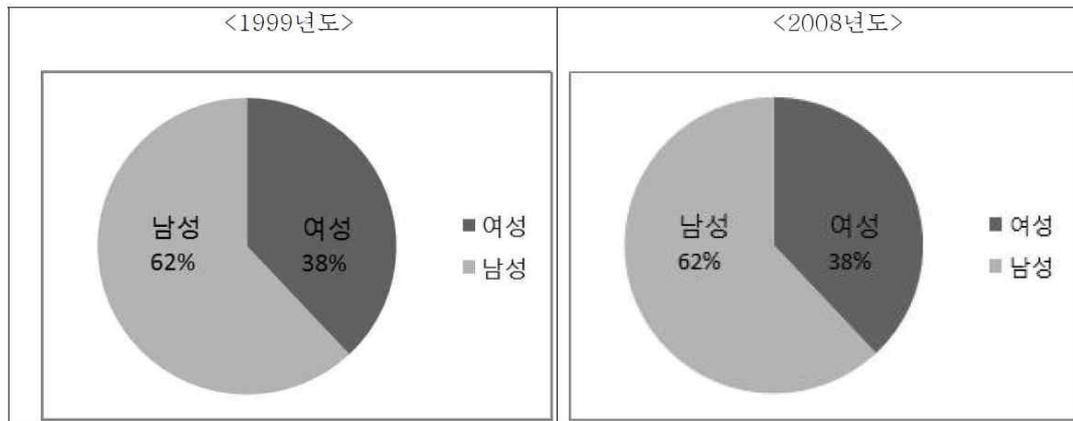
아래는 두 국가의 사법 시험 지원율 현황에 관한 통계 자료입니다.

**[A국가]**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현황									
사법 시험 지원 현황	총계	709	801	991	998	906	1,009	1,001	994	1,011	1,005
	남자	587	650	818	759	716	763	678	619	657	623

	여자	122	151	173	239	190	246	323	375	354	382
	여성 비율 (%)	17.2	18.9	17.5	23.9	21	24.4	32.3	37.7	34	38

[B국가]



예시답안

사회규범은 국가나 시대에 따라 상대적이다. 그리고 때로는 기존 규범을 탈피하는 것이 사회적 발전을 가져올 수도 있다.

제시문 (다)는 사회규범과 관련하여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한다. 첫째, 사회규범은 같은 시대라도 국가별로 다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초가 마약으로 규정되어 유통이 금지되지만, 네덜란드에서는 대마초가 합법적으로 유통되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규범은 같은 국가 내에서도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대마초는 네덜란드에서 호황을 누리다가 최근 엄격한 사회분위기에 의해 시들해졌고, 미국에서 불법약물로 금지되어오다가 최근 몇몇 주에서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제시문 (라)는 A국가와 B국가의 여성 사법시험 지원율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다)의 관점에 부합한다. 첫째, 1999년 A국의 여성 사법시험 지원율은 17.2%에 불과한 반면 B국의 사법시험 지원율은 무려 38%에 이른다. 남녀 성역할에 대한 인식을 사회규범이라고 한다면, 이는 같은 시기에다 국가별로 사회규범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둘째, 1999년 17.2%에 불과했던 A국의 여성 사법시험 지원율이 2008년에는 38%까지 치솟았다. 이는 같은 국가 내에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사회규범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위의 평가를 토대로 향후 A국 여성의 사법시험 지원율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해볼 수 있다. 첫째, A국의 여성 사법시험 지원율은 38%에서 정체기를 맞이할 수 있다. 왜냐하면 1999년에 이미 B국이 진보적으로 여성의 사법시험 지원율이 38%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10년 동안 변화가 없었던 점을 비추어 볼 때, 여성의 사법시험 지원율이 38%에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정체기가 필요하거나 여성의 사법시험 지원율의 성장은 38%가 한계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8년에

38%를 기록한 A국도 한 동안 정체를 맞이하거나 더 이상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둘째, A국의 여성 사법시험지원율은 계속 높아질 수 있다. B국은 A국보다 먼저 38%를 기록했으나 변화 없이 10년간 이 비율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A국은 비록 B국보다 늦은 시기에 성역할의 개방성에 대한 인식이 진보적으로 발전했지만 여성의 사법시험 지원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이 추세가 계속되어 A국의 여성 사법시험 지원율은 B국의 여성 사법시험 지원율을 추월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는 것을 사회적 발전이라고 본다면 B국은 기존의 규범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로 성역할에 있어서 사회적 정체를 맞이하고 있지만, A국은 기존의 사회규범을 탈피하여온 결과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라는 사회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013  
연세대 사회

제시문 (가-2)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와 (다)를 비교 분석하시오.

**제시문 (가-2)**

‘현실주의적 낙관성’은 현실에서 동떨어지지 않은 낙관적 사유 성향이다. 현실주의적 낙관성은 자신에 대한 규칙적 점검, 잠재적 기회와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재평가와 연관된다. 자기 신념의 실현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환경적·사회적 피드백에 주의를 기울인다. 현실주의적 낙관성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 성장 또는 배움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일어나는 일들의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이 내리는 평가와 해석은 사실과 확실성에만 근거할 수는 없다. 우리는 보통 미래가 무엇을 가져다줄지, 인생의 작은 사건이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나는 일들의 의미를 일정한 한계 안에서 해석한다. 사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반적 표현들이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잔에 물이 반 밖에 안 남았다고 보지 말고 아직도 반이나 남았다고 보라”거나 “먹구름 뒤의 태양을 보라”는 식으로 격려한다. 그러나 낙관성은 하나의 신념이므로 잘못된 믿음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암이나 심장 질환이 발병하거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거나 경제적으로 파산할 가능성이 사회의 평균치보다 훨씬 낮다고 믿는다. 이러한 유형의 비현실적 낙관성은 근거 없는 안전감을 줄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행복증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낙관성이 현실적이어야 한다.

**제시문 (나)**

“운명은 바야흐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자, 산초여, 저쪽을 보아라. 서른 아니 그보다 훨씬 많은 흉악한 거인들이 버티고 서 있다. 나는 저놈들과 싸워 다 죽인 후에 거기서 얻은 전리품으로 일약 거부가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정의의 전투! 이 지구상에 널려 있는 악의 씨를 없애는 하느님에 대한 위대한 봉사이다.”

“아니 거인들이 어디 있어요?” 하고 산초가 물었다.

“아, 저쪽에 긴 팔을 가진 놈들 말이다. 어떤 놈들은 팔 길이가 거의 20리에 걸쳐 뻗쳐 있구나.”

“나리, 저 거인처럼 보이는 것들은 말입쥌, 실상은 풍차들이에요. 그리고 저 팔처럼 보이는 것은 바람의 힘으로 움직여서 맷돌을 돌리는 날개입쥌.”

“정말 너는 모험이라는 것을 통 겪어보지 못한 모양이로구나. 저놈들은 틀림 없는 거인들이야. 겁이 나거든 여기 가만히 있거라. 내가 저놈들하고 치열한 싸움을 하는 동안 너는 여기에서 물러나 기도나 하며 엎드려 있으란 말이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돈 키호테는 로시난테에게 박차를 가했다. 지금 공격하려는 것은 거인들이 아니고 풍차라고 악을 쓰는 산초의 말을 아예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들이 거인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산초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 가서도 그것이 정말 무엇인가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이 비겁하고 형편없는 놈들아, 여기 기사 한 명이 너희들과 맞서려고 하니, 아예 도망갈 생각은 말아라.” 이때 마침 바람이 불어서 풍차 날개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돈 키호테는 이것을 보자 다시 소리를 질렀다.

“네 놈들은 부리아레오보다 더 많은 팔을 움직인다 할지라도 나에게 호되게 당하리라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는 자기가 사모하는 들시네아님에게 이 난관을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사 하고 두 손 모아 비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러고는 방패로 몸을 가리고 창은 가슴받이에 달린 철고리에 꽂은 채 로시난테에게 박차를 가하면서 맨 앞에 있는 풍차로 덤벼 들었다. 창으로 날개를 치니 세찬 바람이 일어나 날개를 돌리는 통에 창은 그만 산산조각이 나 버리고 말과 기수는 공중으로 솟았다가 땅으로 떨어져 들판을 때굴때굴 굴렀다. 산초가 당나귀를 전속력으로 몰아 주인을 구하려고 달려가 보니 돈 키호테는 처참하게 쓰러져 있었다.

#### 제시문 (다)

옛적에 한 여자 있으되 일신이 갖은 병신이라 나이 사십이 넘도록 출가하지 못하여 그저 처녀로 있으니 옥빈홍안이 절로 늙어가고 설분화용이 공연히 없어지니 설움이 골수에 맺히고 분함이 심중에 가득하여 미칠 듯 취할 듯 좌불안석하여 세월을 보내더니 (중략) 내 비록 병신이나 남과 같이 못할소냐 / 내 얼굴 엷다 마소 엷은 구멍 슬기 들고 / 내 얼굴 검다 마소 분칠하면 아니될까 / 한 편 눈이 멀었으나 한 편 눈은 밝아있네 / 바늘 귀를 능히 꿰며 버선볼을 못 박으며 / 귀 먹다 나무라나 크게 하면 알아듣고 천둥 소리 능히 듣네 / 오른손으로 밥 먹으니 왼손 하여 무엇 할고 / 한 편 다리 병신이나 뒷간 출입 능히 하고 / 콧구멍이 맥맥하나 냄새는 쉽게 맡네 / 입술이 푸르기는 연지 빛을 발라보세 / 엉덩 뼈가 너르기는 해산 잘할 본보기요 / 가슴이 뒤얹기는 진일 잘 할 기골일세 / 내 얼굴 불작시면 비록 곱진 아니하나 / 일등 수모\* 불러다가 현사롭게 단장하면 / 남이라고 맞은 서방 난들 설마 못 맞을까 / 대체로 생각하면 내가 결단 못할손가 / 부모동생 민다가는 서방맞기 지난하다 / 오늘 밤이 어서 가고 내일 아침 돌아오면 / 중매과를 불러다가 힘을 써서 청혼하면 어찌 아니 못 될손가 / 이처럼 생각하니 없던 웃음 절로 난다 / 신령님도 알 것이니 지성이면 감천이라 / 부모들도 의논하고 동생들도 의논하여 / 김도령과 의혼하니 첫 마디에 되는구나 / 혼인택일 가까우니 엉덩춤이 절로 난다.

\*수모: 혼례 때 신부의 단장을 도와주는 여성

### 예시답안

사람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원동력으로 하여 삶을 살아가지만, 그 희망의 성격이 비현실적인가 현실적인가에 따라 사뭇 다른 미래를 맞이하게 된다.

(가-2)는 건강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낙관성이 필요하지만 이 때 낙관성은 현실에 기반을 둔 것이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왜냐하면 비현실적 낙관적 사유는 주관적으로 구성된 것이기에 현실과는 괴리가 있어 이를 근거로써 한 판단은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2)는 비현실적 낙관적 사유에서 벗어나 정확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규칙적 점검과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재평가를 하며 환경적·사회적 피드백을 수용하고, 힘든 상황도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추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야 자신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건설할 수 있고, 긍정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돈 키호테는 비현실적 낙관성을 지닌 인물로서 비현실적 낙관성으로 인해 부정적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돈 키호테는 풍차를 거인으로 착각하였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결여되어있다. 그리고 돈 키호테가 거인으로 생각하는 사물이 실제로는 풍차임을 알려주는 산초의 말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환경적·사회적 피드백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끝까지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여 풍차로 돌진한 것을 볼 때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규칙적 점검 및 자신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힘든 상황을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자세 또한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나)의 돈 키호테는 처참하게 들판을 때굴때굴 구르게 되었다.

이에 반해 (다)의 화자는 현실적 낙관성을 지닌 인물로서 현실적 낙관성으로 인해 긍정적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다)의 화자는 자신을 병신이라고 평가하는 등 자신의 용모가 남들보다 떨어진다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드러낸다. 그리고 부모, 동생들과 자신의 혼사를 의논하는 모습을 볼 때 환경적·사회적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면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 이를 기회로 삼으려하고, 부모동생만 믿으면 혼사에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직접적으로 자신이 중매과를 부르는 모습 등을 볼 때 힘든 상황을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나타나며 돌변하는 상황에 대한 규칙적 점검 및 자신에 대한 재평가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다)의 화자는 김도령과의 혼인약속을 받아내는데 성공하게 되었다.

**Rule25 전건긍정과 후건부정을 활용하라.**

전건긍정 논증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지닌다.

**p라면 q이다.**

**p다.**

**따라서 q이다.**

후건부정 논증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지닌다.

**p라면 q이다.**

**~q이다.**

**따라서 ~p이다.**

**전건긍정**

**예시**

만약 그가 천재라면 이 문제를 10분 안에 풀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천재이다.

그는 10분 안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예시**

만약 홀로 사는 70대 이상의 사람들의 자살률이 높으면, 국가는 70대 이상의 사람들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복지정책을 펼쳐야 한다.

홀로 사는 70대 이상의 사람들의 자살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자살률보다 높다.

국가는 70대 이상의 사람들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복지정책을 펼쳐야 한다.

전건긍정 논증은 ‘P라면 Q이다.’라는 전제를 출발점으로 설정하기에 가언명제를 바탕으로 한 논증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언이란 정언과 반대되는 말로 “만약 ~라면”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반가언적 삼단논법에 해당합니다. 대전제는 ‘가언’, 소전제와 결론은 ‘정언’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입니다.

‘P라면 Q이다.’에서

‘P라면~’은 전건, ‘Q이다.’는 후건에 해당합니다.

전건긍정 논증은 위와 같이 전건을 긍정하여 연역적 논증을 해나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형식으로 형식적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기에 전건긍정논증을 잘 활용하면 아주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나쁜 예시**

만약 원아이드잭이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는 오르비를 탈퇴할 것이다.

원아이드잭은 정직한 사람이다.

그는 오르비를 탈퇴할 것이다.

참고로 전건긍정 논증도 연역논증의 한 부류에 속하므로 전제의 신뢰성이 중요하며, 지식을 확장하는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위의 예에서 이루어진 전건긍정논증은 형식적 측면에서 타당하나 전제의 신뢰성의 의심되기에 좋은 논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정직’과 ‘오르비 탈퇴’사이에 큰 연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후건부정**

가언명제에서 후건을 부정함으로써 전건을 부정하는 형식의 논증을 후건부정(modus tollens) 이라 합니다. 후건부정 또한 전건긍정과 마찬가지로 대전제는 ‘가언’, 소전제 및 결론은 ‘정언’으로 이루어져있기에 반가언적 삼단논법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전건긍정과 달리 ‘P라면 Q이다.’에서 후건인 ‘Q이다.’를 부정함으로써 논증이 이루어집니다.

**예시**

로스쿨학생이라면 변호사가 될 것이다.  
원아이드잭은 변호사가 되지 못했다.  
원아이드잭은 로스쿨학생이 아니다.

**예시**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청혼을 수락할 것이다.  
그녀는 나의 청혼을 거절했다.  
그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참고로 후건부정 또한 연역논증의 한 부류에 속하므로 전제의 신뢰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연역은 형식적 타당성만을 검토하는 작업입니다. 올바른 연역논증이기는 하나 로스쿨학생이라도 변호사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변호사가 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상황에 따라 청혼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이 전제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Rule26 고등수학의 내용을 기억하라. (전건부정과 후건긍정의 오류)**

‘p이면 q’일 때,

항상 ‘~q이면 ~p이다.’ (대우)

**그러나 ‘q이면 p’, ‘~p이면 q.’는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 (역, 이는 항상 성립하지 않음)**

위는 수험생이라면 다 알만한 고등수학의 명제 부분의 내용입니다. 고등수학 명제 부분의 ‘역’, ‘이’를 논리학에서는 ‘후건긍정’, ‘전건부정’이라고 합니다. 둘 다 설령 전제가 참이라고 할지라도 타당하지 않은 연역논증의 방식이기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안을 고려하지 않는 논증방식들이기 때문입니다.

(‘p이면 q’에서 p는 q의 원인이지만, q는 p의 원인이 아님을 깨닫는다면 이들이 왜 타당하지 않은 연역논증의 방식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전건부정의 오류**

**예시**

외제차를 사면 친구들의 부러움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친구들이 부러워하지 않았다.  
외제차를 사지 않았다.

**예시**

축구선수라면 일반인보다 체격이 좋을 것이다.  
일반인보다 체격이 좋지 않다.  
축구선수가 아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연히 외제차를 사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졌거나 시험에서 떨어져서 부러워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또 일반인보다 체격이 좋지 않다고 하여 축구선수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선수인 메시(169cm)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후건긍정의 오류**

**예시**

외제차를 사면 친구들의 부러움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친구들이 나를 부러워했다.  
나는 외제차를 샀다.

**예시**

축구선수라면 일반인보다 체격이 좋을 것이다.  
일반인보다 체격이 좋다.  
축구선수이다.

**Rule27 가언삼단논법은 가장 기본적 연역논증방법이다.**

만일 p라면 q다.

만일 q라면 r다.

따라서 만일 p라면 r다.

**예시 [논증의 기술 中 (앤서니워스텐著)]**

만일 당신이 다른 문화를 연구한다면(S), 당신은 인간의 관습이 다양함을 깨닫기 시작할 것이다.(V)

만일 당신이 인간의 관습이 다양함을 깨닫기 시작한다면(V), 당신은 보다 관용적이 될 것이다. (T)

따라서 만일 당신이 다른 문화들을 연구한다면(S), 당신은 보다 관용적이 될 것이다. (T)

전건긍정법과 후건부정법 모두 대전제는 가언명제이지만 소전제와 결론은 가언명제가 아니라 정언명제로 이루어져 있기에 이들은 반가언적 삼단논법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순수한 가언삼단논법은 대전제, 소전제, 결론 모두가 가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또한 타당한 연역논증의 방식이니 확실히 배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2015 연세대 인문)**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본성에는 이와 상반되는 몇 가지 원리가 분명하게 존재한다. 이 원리들로 인해 인간은 타인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바라보는 즐거움 이외에는 얻는 것이 없어도 타인이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보통 순수한 가언삼단논법을 형식을 갖추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글이 너무 지루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통해 순수한 가언삼단논법을 구사하는 경우가 더 많기에 이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로 위의 예제는 순수한 세련되고도 자연스럽게 가언삼단논법을 구사한 결과물입니다.

만일 인간이라면(S), 이타적 본성을 가질 것이다.(V)

만일 이타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면(V), 타인의 운명과 행복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T)

만약 인간이라면(S) 타인의 운명과 행복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T)

논술에서 순수한 가언삼단논법을 사용하려면 가언삼단논법의 기본뼈대를 잡은 후에 위 처럼 세련되고도 자연스럽게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Rule28 선언삼단논법은 제3의 선언지가 있는가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그리고 선언지의 성격이 배타적인지 포괄적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A이거나 B이다.**

**A가 아니다.**

**따라서 B이다.**

선언이란 말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언삼단논법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둘 이상의 선언지들 가운데 최소 한 선언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b>예시</b>
소는 인간이거나 동물이다. 소는 인간이 아니다. 따라서 소는 동물이다.

위는 타당한 선언삼단논법입니다. 그러나 선언삼단논법을 사용할 때는 제 3의 선언지가 있을 수 있는가를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b>나쁜 예시 [논증하는 글쓰기의 기술(채석용著)]</b>
결혼의 목적은 출산과 양육이거나 상대와 배타적으로 성관계를 나누는 것이다. 출신과 양육은 결혼의 목적이 아니다. 따라서 결혼의 목적은 상대와 배타적으로 성관계를 나누는 것이다
이 논증에서 제시된 선언지는 ‘출산과 양육 및 배타적 성관계’의 두 가지이다 하지만 이외에도 결혼의 목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선언지들은 얼마든지 있다. ‘집안의 대 잇기’, ‘신분 상승하기’, ‘타인에게 인정받기’ 등이 새로운 선언지로 제시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증은 선언 삼단논법의 형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논증이라 보기 어렵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선언지의 성격이 배타적인지 포괄적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거나’를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한다. 서로 동시에 참일 수 없는 경우를 배타적이라고 하고 동시에 참일 수 있는 경우를 포괄적이라고 합니다. 포괄적 선언지의 경우 동시에 참일 수 있기에 참인 선언지를 제시해서 나머지 선언지가 거짓임을 보이려는 논증 방식은 ‘선언지 긍정의 오류’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단, 포괄적 선언지일지라도 거짓인 선언지들을 제외하면서 참인 선언지를 결정해나가는 방식은 타당합니다.)

<b>배타적 선언지</b>
사과는 과일이거나 채소이다. 사과는 과일이다. 따라서 사과는 채소가 아니다.
<b>포괄적 선언지 (선언지 긍정의 오류)</b>
나는 수요일 여자 친구를 만나거나 교회에 간다. 나는 수요일에 여자 친구를 만났다. 따라서 나는 수요일에 교회에 가지 않았다.

Rule29 딜레마(양도논법)는 아주 강력한 논증방법이지만, 말장난이 될 위험성이 있다.

p거나 q다.

만일 P라면 r다.

만일 q라면 s다.

따라서 r거나 s다.

이것도 저것도 선택할 수 없는 모순적인 상황을 가리켜 '딜레마'라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죄수의 딜레마'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겠습니다.

#### 참고 - 죄수의 딜레마

두 명의 혐의자(A와 B)가 폭행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다. 경찰은 이들이 저지른 폭행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폭행과정에서 조직폭력배를 동원하고, 흉기를 사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혐의를 두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혐의를 자백받기 위하여 경찰은 이들 두 명의 혐의자들을 서로 분리해 각각 다른 방에서 심문하기로 했다. 혐의자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의견을 나누거나 서로의 진술을 맞출 수 없다.

경찰은 혐의자들에게 자백을 종용하며 다음과 같은 유인책을 제시한다. 만약 한 사람이 조직폭력배 동원 및 흉기 사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 자백하고 다른 사람이 부인하면 자백한 사람은 폭행에 대해서도 불기소하고 즉시 석방하는 반면에 혐의를 부인한 사람에게는 9년형이 부과된다. 만약 두 사람 모두 자백하면 두 사람은 각각 5년형이다. 물론 두 혐의자 모두가 조직폭력배 동원과 흉기사용을 부인하면 이들은 각각 1년형에 처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혐의자들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일까? 여기서 게임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혐의자들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각 혐의자들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은 무엇일까? 혐의자 A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만약 혐의자 B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A가 부인하면 1년형이고 자백하면 석방된다. 즉 B가 부인하는 경우에 A에게 유리한 전략은 자백이다. 이제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혐의자 B가 혐의를 자백하는 경우에 A는 부인하면 9년형이고 자백하면 5년형이다. 즉 B가 자백하는 경우에 A에게 유리한 전략은 자백이다. 따라서 A의 입장에서 보면 B가 부인하던 자백하던 간에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은 자백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상대방의 선택이 무엇이든 간에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선택하는 전략을 게임이론에서는 우월한 전략(dominant strategy)이라고 한다. 이제 혐의자 B의 입장에서 살펴보자. B 역시 어떠한 선택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할지를 궁리할 것이다. B가 선택할 수 있는 우월한 전략은 A와 마찬가지로 자백이다.

위의 예에서 경찰은 두 죄수들이 자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두 죄수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딜레마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딜레마를 논증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논증에서는 딜레마를 양도논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나열한 후 상대방이 어떠한 선택을 해도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타남을 보여주면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선택을 해도 질 수밖에 없으므로 딜레마일겁니다.

**예시**

프로타고라스와 그의 제자 에우아틀로스가 합의한 수업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분쟁이 발생했다. 부유한 젊은이 에우아틀로스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변론술을 배우고 싶었다. 그는 프로타고라스의 제자가 되었으며 프로타고라스가 그에게 요구한 거액의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에우아틀로스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절반을 지급했고, 나머지 절반은 그가 법정에서 변론하여 승소하는 최초의 날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에우아틀로스는 프로타고라스를 따르면서 배웠고 실제로 변론술에 상당한 진전을 보였으나 한 번도 법정에서 변론을 하지 않은 채 오랜 세월을 보냄으로써 자기가 나머지 수업료를 지급하지 않으려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그러자 프로타고라스는 스스로 교묘하다고 여긴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해 냈다. 그는 그 계약에 따라 나머지 수업료의 지급을 요구하기로 결심하고 에우아틀로스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그들이 변론을 하기 위해 법정에서 쉴 때 프로타고라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리석은 젊은이여, 그대가 이 소송에서 승소하든 패소하든 그대는 내가 요구하는 것을 지급해야만 할 결세. 만약 그대가 패소한다면 내가 승소하므로 판결에 따라 내게 나머지 수업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며, 만약 그대가 승소한다면 그대가 승소하므로 우리의 계약에 따라 내게 나머지 수업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네."

에우아틀로스는 다음과 같이 응수했다: "현명하신 선생님, 제가 이 소송에서 승소하든 패소하든 저는 선생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제가 승소한다면 제가 승소하므로 판결에 따라 제가 선생님께 지급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만약 제가 패소한다면 제가 승소한 적이 없으므로 우리의 계약에 따라 제가 선생님께 지급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프로타고라스의 양도논법**

만약 그대가 패소한다면 내가 승소하므로 판결에 따라 내게 나머지 수업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며, 만약 그대가 승소한다면 그대가 승소하므로 우리의 계약에 따라 내게 나머지 수업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네.

**에우아틀로스의 양도논법**

만약 제가 승소한다면 제가 승소하므로 판결에 따라 제가 선생님께 지급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만약 제가 패소한다면 제가 승소한 적이 없으므로 우리의 계약에 따라 제가 선생님께 지급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도논법은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양도논법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에게 자신의 논리를 확실히 각인시킬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위의 프로타고라스와 에우아틀로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퀴변술로 전략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양도논법도 어디까지나 연역논증의 한 방법이기엔 전제의 신뢰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제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위의 프로타고라스와 에우아틀로스의 사례처럼 말장난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양도논법은 다음과 같이 전건긍정을 이용하는 구성적 양도논법과 후건부정을 이용하는 파괴적 양도논법으로 나뉩니다.

<b>단순구성적 양도논법</b>	
대전제의 두 개의 후건이 동일하고 결론이 그 동일한 후건을 긍정하는 정언판단의 추리형식입니다. 공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A라면 C다. 만약 B라면 C다. A거나 B다. 그러므로 C다.	
만약 토끼가 호랑이를 건드린다면, 호랑이는 토끼를 잡아먹으려 할 것이다. 만약 토끼가 호랑이를 건드리지 않아도, 호랑이는 토끼를 잡아먹으려 할 것이다. 토끼는 호랑이를 건드리거나 건드리지 않거나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호랑이는 여하튼 토끼를 잡아먹으려 할 것이다.	
<b>복합구성적 양도논법</b>	
대전제의 두 개의 후건이 다르고 결론이 그 다른 후건을 선언적으로 긍정하는 선언판단의 추리형식이다. 복합구성식을 공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만약 A라면 C다. 만약 B라면 D다. A거나 B다. 그러므로 C거나 D다.	
만약 당신이 한 말이 무의식적이라면 당신은 무지한 사람이다. 만약 당신이 한 말이 의식적이라면 당신은 야심이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한 말은 무의식적이거나 의식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무지한 사람이거나 야심이 있는 사람이다.	
<b>단순파괴적 양도논법</b>	
대전제의 두 개의 전건이 동일하고 결론이 그 동일한 전건을 부정하는 정언판단의 추리형식이다. 단순파괴식을 공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만약 A라면 C다. 만약 A라면 D다. C가 아니거나 D가 아니다. 그러므로 A가 아니다.	
만약 그가 현명한 사람이라면 합리적으로 사물을 대할 것이다. 만약 그가 현명한 사람이라면 주관적 억측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합리적으로 사물을 대하지 않거나 주관적 억측으로 일을 처리한다. 그러므로 그는 현명한 사람이 아니다.	
<b>복합파괴적 양도논법</b>	
대전제의 두 개의 전건이 다르고 결론이 그 다른 두 개의 전건을 선언적으로 부정하는 선언판단의 추리형식이다. 복합파괴식을 공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만약 A라면 C다. 만약 B라면 D다. C가 아니거나 D가 아니다. 그러므로 A가 아니거나 B가 아니다.	

만약 사려 깊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자기반성의 정신이 있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는 사려깊은 사람이 아니거나 자기 반성의 정신이 없다.

양도논증은 반드시 아래의 두 가지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대전제에 있는 조건판단의 전건과 후건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  
둘째, 소전제에 있는 선언지는 모든 가능성을 다 포괄해야 하며, 선언지간에는 배제적 관계가 있어야 한다.

양도논증의 오류를 시정하거나 논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전제로 되는 조건판단이 거짓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방법이다. 즉, 대전제의 전건이 후건의 필연적인 이유로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거나 후건이 전건의 필연적인 귀결로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방법이다.

둘째, 소전제로 되는 선언판단이 거짓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방법이다. 즉, 소전제로 되는 선언판단의 선언지가 그 문제의 가능성 전부를 열거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거나 혹은 선언지들 사이에 배제적 관계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방법이다.

셋째, 원래의 양도논증과 상반되는 양반논증을 구성하는 방법이다. 즉, 원래의 양도추리와 모순되는 결론을 얻는 새로운 양도추리를 제기함으로써 원래의 양도추리를 부정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새로 구성된 양도추리가 원래의 양도추리를 물리칠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꼭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Rule30 후건부정을 확장한 귀류법을 사용하라.

주장 A

반대주장 not A

만약 not A이면 B이다.

B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즉 not B여야 한다.

따라서 후건부정에 의해 not(not A).

즉, A이다.

예시

공부하지 않으면 대학에 갈 수 없다.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는 것은 학생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너는 공부를 해야 한다.

‘오류로의 귀착’을 의미하는 귀류법은 후건부정을 확장한 논증방법입니다. 주장하고자 하는 결론을 부정했을 때의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음을 보여서 간접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논증방법을 말합니다. 귀류법은 자신의 주장을 세련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적절히 활용하면 좋은 글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예시 [논증의 기술 中 (앤서니워스톤著)]

집처럼 세계에도 창조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집이 완벽하지 않을 때 누가 비난받아야 하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다. 그것은 집을 만들어낸 목수나 벽돌공일 것이다. 그런데 이 세계 역시 전적으로 완벽하지는 않다. 따라서 세계의 창조자도 완벽하지 않다는 결론이 따라 나오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당신은 이 결론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 불합리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런 결론으로 이끈 가정을 거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에는 집과 같은 방식의 창조자는 없다.

세계에도 집처럼 창조자가 있다.

세계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신은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신은 완벽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세계에는 집과 같은 방식의 창조자는 없다.

즉, 신은 없다.

The 논술  
ADVANCED

귀남논증

### Rule31 귀납논증은 정도의 문제

연역논증은 형식적 타당성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연역을 사용한 논증은 ‘옳다’ 혹은 ‘그르다’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귀납은 개별사례로부터의 일반화를 뜻하기에 귀납논증은 그 근거의 설득력에 따라 ‘약하다’, ‘강하다’등으로 표현된다. 즉, 귀납논증은 정도의 문제이다.

귀납(歸納, induction)은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현상에서 그러한 사례들이 포함되는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추리의 방법입니다. 귀납이라는 말은 ‘이끌려가다’는 뜻을 지닌 라틴어 ‘inductio, inducere’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곧 귀납은 개개의 구체적인 사실이나 현상에 대한 관찰로서 얻어진 인식을 그 유(類)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으로 이끌어가는 절차이며, 인간의 다양한 경험, 실천, 실험 등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사고방식입니다.

귀납적 추리(inductive inference)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듯이 표본적인 관찰이나 실험에 근거해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통계적인 추리도 있고, 사물이나 사태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어떤 결론을 끌어내는 유비적인(analogically) 추리도 있습니다. 과거에 나타났던 일에 근거해 미래에 어떤 것이 일어날지를 예측하기도 하고, 현재의 사실들에 근거하여 과거의 사실들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귀납은 주어진 사실이나 현상들에 근거해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에서도 흔하게 나타나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의 각 분야들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귀납은 연역과는 달리 사실적 지식을 확장해 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가 결론의 필연성을 논리적으로 확립해 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닙니다. 귀납적 추리는 근본적으로 관찰과 실험에서 얻은 부분적이고 특수한 사례를 근거로 전체에 적용시키는 이른바 ‘귀납적 비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귀납에서 얻어진 결론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일정한 개연성을 지닌 일반적 명제 내지는 가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b>예시</b>
<b>약한 귀납논증</b>
3학년 2반 김창수는 키가 크다. 3학년 2반 학생들은 키가 크다.
<b>강한 귀납논증</b>
3학년 2반 김창수는 키가 크다. 3학년 2반 한석원은 키가 크다. 3학년 2반 이창무는 키가 크다. 3학년 2반 신승범은 키가 크다. 3학년 2반 정승제는 키가 크다. 3학년 2반 고정재는 키가 크다. 3학년 2반 은선진은 키가 크다. 3학년 2반 학생들은 키가 크다.

**Rule32 다양한 사례로써 일반화하라.**

앞에서 살펴 본대로 귀납논증은 근거의 설득력에 따라 약한 논증이 되기도 하고, 강한 논증이 된다. **따라서 다양한 사례로써 근거의 설득력을 더하라.**

귀납논증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은 사례의 다양성입니다. 사례가 부족하면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쁜 예시**

같은 반 친구인 제니는 마이클을 좋아한다.  
같은 반 친구들은 마이클을 좋아한다.

**나쁜 예시**

반면, 제시문 (나)는 개인의 행복은 타인의 불행임을 보여준다. (나)의 남편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아내의 행복은 신경 쓰지 않고 행동한다. 아내는 불행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관념적인 것을 강요한다. 남편은 유교적 가치보다는 자신의 뜻을 좇아 행복하게 사는 반면, 아내는 유교적 가치를 강요당하며 행복한 남편을 기다리며 불행하게 살아야하는 상황이 된다. 이를 보면, 한 개인의 행복이 타인에게 행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타인을 힘들게 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즉,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은 불일치하는 것이다.

-> 남편의 행복이 부인에게 불행을 가져왔다고 해서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이 불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의 행복이 타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까지는 추론할 수 있겠으나 항상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이 불일치한다고 보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예시**

같은 반 친구인 미나는 마이클을 좋아한다.  
같은 반 친구인 유나는 마이클을 좋아한다.  
같은 반 친구인 샘은 마이클을 좋아한다.  
같은 반 친구인 토니는 마이클을 좋아한다.  
같은 반 친구인 가브리엘은 마이클을 좋아한다.  
같은 반 친구인 톰은 마이클을 좋아한다.  
같은 반 친구인 테드는 마이클을 좋아한다.  
같은 반 친구인 잭은 마이클을 좋아한다.  
같은 반 친구인 캔은 마이클을 좋아한다.  
같은 반 친구인 타바레즈는 마이클을 좋아한다.  
같은 반 친구들은 마이클을 좋아한다.

위에 제시된 나쁜 예시는 하나의 근거로써 성급하게 일반화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오류를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합니다. 제니가 마이클을 좋아한다고 해서 반 친구들 모두가 마이클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사례가 부족하기 때문에 선뜻 수긍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래의 좋은 예시는 위의 나쁜 예시보다 훨씬 강한 논증입니다. 사례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마이클을 좋아하므로 반 친구들 모두가 마이클을 좋아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납논증이

에 100% 옳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나쁜 예시보다는 훨씬 개연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귀납적 일반화에는 난점이 있습니다. 과연 얼마만큼의 근거들을 제시해야 적당한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글쓴이는 적당한 근거들을 제시했다고 생각하지만 읽는 이는 그렇지 않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글쓴이는 최대한 많은 양의 정보를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점이 있는데, 구체적 사례를 위와 같은 식으로 단순하게 계속 나열하는 것은 불필요한 문장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주화'라는 개념을 숙지하여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결론보다 작은 범위에서 일반화를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일반화하십시오.

**더 좋은 예시**

1, 2, 3분단의 학생들은 마이클을 좋아한다.  
같은 반 친구들은 마이클을 좋아한다.

**Rule33 대표성 있는 사례로써 일반화하라.**

앞에서 살펴 본대로 귀납논증은 근거의 설득력에 따라 약한 논증이 되기도 하고, 강한 논증이 된다. **따라서 대표성 있는 사례로써 근거의 설득력을 더하라.**

귀납논증에서 아무리 많은 예를 들더라도 그 예들이 일반화할 대상 집합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납논증에서는 대표성 있는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쁜 예시**

201호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박근혜를 좋아한다.  
202호 아저씨도 박근혜를 좋아한다.  
204호 할머니도 박근혜를 좋아한다.  
따라서 국민들은 박근혜를 좋아한다.

위의 예시는 좋지 않습니다. 같은 동의 사람들이 박근혜를 좋아한다고 해서 모든 국민들이 박근혜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의 주민들이 국민을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위 예시는 대표성 없는 사례로써 일반화를 시도한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좋은 예시**

서울사람들은 박근혜를 좋아한다.  
충청도사람들은 박근혜를 좋아한다.  
전라도사람들은 박근혜를 좋아한다.  
경상도사람들은 박근혜를 좋아한다.  
강원도사람들은 박근혜를 좋아한다.  
제주도사람들은 박근혜를 좋아한다.  
따라서 국민들은 박근혜를 좋아한다.

**Rule34 반례를 반드시 고려하라.**

**귀납적 일반화를 시도할 때는 의도적, 체계적으로 반례를 찾아라.**

반례는 귀납적 일반화를 통해 주장하려는 바와 모순되는 예를 가리킵니다. 자신의 주장과 모순되는 예이므로 썩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이는 잘만 활용하면 예방접종주사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주장은 과감하게 버리고, 수정의 여지가 있는 주장은 반례를 고려하여 적절히 고쳐 쓰십시오. 따라서 귀납적 일반화를 하기 위해서는 의도적, 체계적으로 반례를 찾아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자신이 내린 일반적 결론을 예리하게 할 수 있으며, 주제를 깊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예시1	
주장	조선인들의 특징은 편 가르기에 있다. 허구한 날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로 편을 가르며 서로 편을 갈라 싸우며 분쟁을 일으킨다. 이는 반도라는 지리적 특성에 의한 것이다.
비판	조선의 봉당정치의 폐해가 심했던 것은 사실이나 정치적 이합집산에 따라 편을 갈라 서로 대립하는 것은 비단 조선에서만 일어났던 현상이 아니라 어느 시기, 어느 나라에서나 일어났던 현상이다.
예시2	
주장	모든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남자든 여자든 모두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판	합리적 사고를 기대할 수 없는 아이나 심신상실자는 책임능력의 예외가 되지 않을까.
고쳐 쓰기	미성년자와 제대로 된 이성적 판단을 하기 힘든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성적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시3	
주장	물질적 풍요가 행복을 담보한다.
비판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는 빈곤한 나라들 중 하나이지만,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쳐 쓰기	물질적 풍요는 대부분의 경우 행복감을 가져다준다.

**Rule35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혼동하지 마라.**

부분과 전체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부분을 통해 전체를 일반화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분과 전체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보통 부분과 전체는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부분과 전체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기에 부분과 전체가 다른 속성을 지니는 경우에는 부분의 속성을 가지고서 바로 일반화를 하면 안 됩니다.

**예시 [논증하는 글쓰기의 기술(채석용著)]**

**부분을 전체로 착각한 경우**

박지성은 최고의 윙어이다.  
메시는 최고의 스트라이커다.  
존 데리는 최고의 센터백이다.  
반 데 사르는 최고의 골키퍼다.  
따라서 이들로 구성된 축구팀은 최고의 축구팀이다.

위 논증의 결론은 강도가 낮다. 왜냐하면 좋은 축구팀이 갖춰야 할 팀워크와 정신력이라는 요소가 논증 과정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훌륭한 선수들을 모아놓는다 해도 곧바로 훌륭한 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각 포지션별로 최고의 선수들로만 구성되어 '지구방위대' 라는 별명으로까지 불리는 레알 마드리드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성적을 거둘 때가 많다.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한 적도 있지만 초반에 탈락한 적도 많으며 프리메라리가(스페인 리그)에서 우승을 놓친 경우도 많다. 뉴욕 양키스와 요미우리 자이언츠 역시 마찬가지다. 최고액 연봉을 받는 선수들을 모아 놓았지만 적은 연봉을 받는 선수들로 구성된 팀에게 우승 트로피를 넘겨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전체를 부분으로 착각한 경우**

3학년 5반의 수학 평균 점수는 87점이다.  
따라서 3학년 5반 학생 인 철수의 수학 점수는 87점이다.

전체의 성질을 부분들도 가지고 있다고 봐서는 곤란하다. 3학년 5반 학생들 가운데엔 87점을 받은 학생도 있을 수 있고, 100점을 받은 학생도 있을 수 있으며, 50점을 받은 학생도 있을 수 있다. 심지어 87점을 받은 학생이 한 명도 없을 수도 있다. 전체의 성질을 근거로 부분들의 성질을 선불리 유추할 경우 이처럼 잘못된 논증을 구사할 수 있다.

**Rule36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만을 사례로 활용하라.**

귀납적 일반화는 개별적 사례들로부터 일반적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을 취하기에 귀납적 일반화의 신뢰성은 근거가 되는 사례들의 신뢰성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귀납적 일반화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만을 사례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이 아닌 사건들을 활용하는 것은 논증의 신뢰성을 크게 약화시킵니다. 일반화의 근거가 상상에 의한 것이어서 자의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일어나지 않은 사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사례로써 활용하는 것을 지양하십시오. (물론 예측이 언제나 좋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논증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예시 [논증하는 글쓰기의 기술(채석용著)]**

**나쁜 예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상급식의 이점을 모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다.  
무상급식을 잠정적으로 일 년만 시행해보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무상급식의 이점을 충분히 느끼고 무상급식을 찬성하게 될 것이다.

**나쁜 예시**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이 쉽게 걸린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일단 한번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보면 아무런 병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걱정은 지나친 것이다.

이처럼 무언가 주장하는 바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자 할 때 이런 논증을 구사하기 쉽다. 차근차근 주장의 근거를 거론하는 대신 선불리 원하는 결과를 미리 제시하고, 상대방에게 그 결과를 전제로 자신의 주장에 동조하라고 압박지른다. 토론 과정에서는 급한 마음에 이런 식의 논증을 구사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토론에서 이런 잘못된 논증을 구사할 경우에는 그저 작은 실수로 치부하고 웃어넘길 수도 있지만 글쓰기 과정에서 이런 논증을 구사하게 되면 에누리 없다. 논증은 실패다

**Rule37 흑백논리에 휘말리지 마라.**

**이분법적 잣대로 판단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제 3의 선택지가 있는데도 이를 배제하고 이분법적 잣대로 판단한다면 논증의 실패로 귀결된다.

흑백사고의 오류는 모든 문제를 또는 논의의 대상을 양극의 두 가지로만 구분함으로써 빚어지는 오류입니다. 즉, 흑과 백 이외의 여러 가지 색깔이 있음에도 그것들을 무시한다든가 고려하지 않는 방법으로, 또는 선과 악 이외의 제3의 선택지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 방식으로 문제점을 논증하든가 논의의 대상을 이해하려 들 때 빚어지는 오류입니다.

<b>나쁜 예시</b>
신승범은 영어를 못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따라서 신승범은 영어를 잘할 것이다.
<b>나쁜 예시</b>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완벽히 증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신은 존재한다.
<b>나쁜 예시</b>
임철한은 통일에 반대한다. 따라서 임철한은 수구꼴통이다.
<b>나쁜 예시</b>
제시문 (가)는 인간은 이상만 바라보며 살 수 없다고 말하며 현실과의 타협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이는 현실에 굴복하여 패배자처럼 살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

# The 논술 ADVANCED

유비논증, 인과논증

**Rule38 유비논증은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다.**

**유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사성이다.**

유비추론은 대상 간 유사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추론기법입니다. 예를 들면 '지구에는 생물이 있다'와 '화성은 여러 점에서 지구와 유사하다'에서 '화성에도 생물이 있을 것이다'라는 추리가 유추에 해당합니다.

**예시**

사람도 외로움을 느끼듯  
홀로 핀 저 꽃도 외로움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유비추론, 즉 유추를 이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근거로써 설득하는 것을 유비논증이라고 합니다. 제시문의 내용에서 '같다.'라는 말이 나오면 유비추론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음을 빨리 파악해야 합니다. 두 대상 간 유사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작업이기에 앞에서 말한 귀납논증의 원칙인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라.'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다양성보다는 유사성이 중요합니다.

**나쁜 예시**

최근 MBC '무한도전' 식스맨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개그맨 장동민의 과거 여성 혐오 발언이 재조명되면서 네티즌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유세윤, 유상무와 함께 팟캐스트 '옹달샘과 꿈꾸는 라디오' 진행 당시 녹취록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장동민과 두 사람의 여성 비하, 언어 성폭력 등의 발언이 공개됐다.

방송 도중 '개 같은 X' 등 욕설은 물론 "여자들은 멍청해서 머리가 남자한테 안 된다" "참을 수 없는 건 처녀가 아닌 여자" 등 성경험이 있는 여자를 비하했다. 또 자신의 코디네이터를 향해 "X가리 망치로 치고 싶다" 등의 충격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장동민 측은 "지난 해 논란이 있었을 때 사과를 드렸다. 식스맨 선정을 앞두고 또 다시 과거 이야기가 나올 줄 몰랐다"며 "잘못은 잘못이니 불쾌하셨던 분들께 또 사과를 드리고 싶다"고 공식 사과의 뜻을 전했다.

방송인 장동민이 위기를 맞았다. 아니 위기를 자초했다. 아니 이미 검증됐어야 했을 이야기들이 너무 뒤늦게 터졌다.

장동민이 지난해 8월 팟캐스트 '옹달샘과 꿈꾸는 라디오'에서 했던 여성혐오 발언들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장동민은 당시 방송에서 "여자들은 멍청해서 이게 남자한테 안돼 머리가", "개XX" 등등 여성을 비하하고 혐오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장동민은 당시 논란이 일자 소속사에서 사과를 하고 해당 녹음 파일을 삭제했다.

하지만 최근 장동민이 MBC '무한도전' 식스맨에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자 과거 발언이 SNS를 통해 재유포 되면서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졌다. 장동민과 유상무 등 개그 트리오 용달샘은 비난이 쇄도하자 인스타그램을 패쇄 했다. 이번에도 소속사에서 재차 사과를 했다. 장동민이 직접 사과를 하지는 않았다. 그는 재수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남자들은 다 그래, 우리끼리 한 이야기 등등의 변명들이 떠도는 걸 보면. (팟캐스트 해당 발언에 대한 논란 이후 용달샘 3인이 변명으로 한 이야기의 요지.)

남자들은 다 그렇지 않다. 니네 안의 일베일 뿐. 니네끼리 한 이야기를 다 들으라고 인터넷 방송에 올렸으니 그 어리석음을 누구에게 탓할 것도 없다.

사람들이란 대개 어리석다. 어릴 적에는 특히 어리석다. 어리석음을 줄이기 위해, 어제보다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그저 노력할 뿐이다. 사람들 중 어리석은 자리에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서 있거나, 더욱 어리석어지는 사람이 간혹 있다.

안타깝게도 장동민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던 것 같다. 장동민은 지난 3일 방송된 JTBC '마녀사냥'에 출연해 모델 한혜진이 싫다고 했다. 장동민은 "(한혜진이)설치고, 떠들고, 말하고 생각하고. 싫어하는 걸 모든 걸 갖췄다"고 했다. 나름 재치 있는 농담이라고 했고, 농담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다. 방송에 패널들의 폭소까지 포함해 그대로 나온 걸 보면.

장동민이 '마녀사냥'에서 한 이야기와 '꿈꾸는 라디오'에서 한 이야기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매체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는 여자가 설치고 떠들고 말하고 생각하는 걸 싫어하는 것이다. 장동민이 일베인 줄은 모르겠으나 일베의 여성혐오와 뭐가 다른가.

사람은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놀리고 괴롭혀 웃으며 안도하는 본성을 갖고 있다. 이 본성이 잘못된 것을 알기에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차별과 싸워왔다. 제도를 만들려 애써왔다. 장동민이 내뱉은 여성혐오 발언들은 누군가에는 그럴 수도 있지, 아니 뭐 다 속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단언컨대 아니다. 장동민이 내뱉은 여성혐오 발언들은 많은 사람들이 맞서 싸워오고 지켜왔던 옳은 것들에 대한 모욕이다. 김구라가 과거 발언, 특히 여성혐오 발언들로 방송 활동을 중단했고, 칼럼니스트 김태훈이 "무늬야적 페미니즘이 IS보다 더 위험하다"고 했다가 아카데미 중계에서 하차된 건 그런 노력들을 모욕했기 때문이다.

장동민은 2년 전 농담으로 한 이야기가 발목을 잡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무한도전'이란 국민 예능 프로그램을 언감생심 탐냈기에 역풍을 맞았다고 느낄 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다. 그는 "개XX"이란 어리석은 말 자리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질타를 받는 것이다. 장동민은 새로운 욕설 캐릭터로, 까칠한 남자 캐릭터로, 새롭게 각광받고 있었다.

장동민은 박명수와 김구라를 잇는 욕쟁이로 부각 되고 있었다. 거침없이 내뱉는 말은 쾌감을 준다. 그 쾌감에 동조하게 만든다. 그 쾌감은, 거침없는 말은 위협하다. 본래 풍자란 위를 향해야 하는 법이건만, 장동민 류의 쾌감은 안전한 아래로 향하고 만다. 놀리고 욕을 해도 안전한 자리에서 돌은 던진다.

**장동민을, 장동민 류의 쾌감을 방치하는 건, 딸 같아서 성추행했다는 전직 국회의장을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장동민은 방송에서 하차해야 한다. '무한도전' 식스맨 뿐 아니라 그의, 그런 식의 일베류 코미디가 사라져야 함을 일깨워야 한다. 장동민은 '무한도전'에 식스맨 후보가 아니라 '무한도전'을 부수러 온 엑스맨이었을지 모른다.

위의 예시는 '무한도전'의 여섯 번째 출연자인 식스맨에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던 장동민씨가 과거에 했던 발언이 문제가 된 것과 관련한 것입니다. 위 기사를 쓴 기자는 나름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란 대개 어리석다. 어릴 적에는 특히 어리석다. 어리석음을 줄이기 위해, 어제보다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그저 노력할 뿐이다.**

'사람들이란 대개 어리석다.'란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것이 아쉽지만(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글을 적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써야하는 것은 논증을 생명으로 하는 논술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념이나 사회적 규범에 기대어 근거 없이 당위성이 포함된 주장만을 나열하지 마십시오.), 경험적으로 판단할 때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주장이라서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놀리고 괴롭혀 웃으며 안도하는 본성을 갖고 있다.**

이 주장도 사실 위처럼 자신의 신념이나 사회적 규범에 기대는 것에 불과하지만, 이 또한 경험적으로 판단할 때 어느 정도는 수긍할 수 있는 주장이라 생각됩니다. (넘어갈 수는 있으나 좋은 논증문은 아닙니다.)

장동민이 내뱉은 여성혐오 발언들은 누군가에는 그럴 수도 있지, 아니 뭐 다 속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단언컨대 아니다. **장동민이 내뱉은 여성혐오 발언들은 많은 사람들이 맞서 싸워오고 지켜왔던 옳은 것들에 대한 모욕이다.** 김구라가 과거 발언, 특히 여성혐오 발언들로 방송 활동을 중단했고, 칼럼니스트 김태훈이 "무녀야적 페미니즘이 IS보다 더 위험하다"고 했다가 아카데미 중계에서 하차된 건 그런 노력들을 모욕했기 때문이다.

제기될 수 있는 반론을 제시하여 미리 막으려고 한 시도는 좋습니다만, 좋지 않은 논증입니다. 장동민씨가 한 발언이 대수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종의 모욕이라는 재반론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주장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주장은 장동민씨가 한 발언이 일종의 모욕이라는 것인데, 그에 대한 근거 없이 모욕을 하면 방송에서 하차가 된다는 문장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지 않습니다.

**장동민을, 장동민 류의 쾌감을 방치하는 건, 딸 같아서 성추행했다는 전직 국회의장을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장동민은 방송에서 하차해야 한다. '무한도전' 식스맨 뿐 아니라 그의, 그런 식의 일베류 코미디가 사라져야 함을 일깨워야 한다. 장동민은 '무한도전'에 식스맨 후보가 아니라 '무한도전'을 부수러 온 엑스맨이었을지 모른다.

마지막에 큰 실수가 나옵니다. '장동민, 장동민 류의 쾌감을 방치하는 건, 딸 같아서 성추행했다는 전직 국회의장을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문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일종의 유비논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대상 간 유사성을 바탕으로 논증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뜻 수긍하기 쉽지 않습니다. 장동민의 개그를 방치하는 것과 성추행을 한 전직 국회의장을 방치하는 것 사이에 유사성이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독자가 쉽게 인정할 수 없는 유사성을 기초로 논증을 진행하는 것은 논증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좋지 못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 **좋은 예시 [논증의 기술 中 (앤서니웨스턴著)]**

미국의 치피와 인디언족 추장인 애덤 노드웰이 어제 로마에서 돌발적인 행동으로 관심을 끌었다. 캘리포니아에서 출발한 비행기를 타고 로마에 도착한 노드웰은 부족의 왕을 상징하는 복장을 하고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과거에 아메리카 대륙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발견의 권리’에 따라 아메리카 인디언의 이름으로 이탈리아를 소유할 것” 이라고 선언했다. 노드웰은 “나는 오늘을 이탈리아 발견의 날’로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콜럼버스는 무슨 권리로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아온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고 말했는가? 이제 나도 그와 똑같은 권리로 이탈리아에 와서 당신네 나라를 발견했음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노드웰은 자신의 이탈리아 ‘발견’ 이 최소한 한 가지 중요한 점에서는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 과 같음을 시사한다. 이미 몇 세기 동안 사람들이 살아온 나라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에서는 자기나 콜럼버스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콜럼버스에게 아메리카 대륙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권리가 있었다면 자기에게도 이탈리아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역설한 것이다. 물론 노드웰에게는 이탈리아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권리가 전혀 없다. 그렇다면 콜럼버스에게도 아메리카 대륙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권리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 논증을 다음과 같이 다시 정리해보자. 노드웰은 ‘ 발견의 권리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권리에 의해서도 이탈리아를 거기에 살지 않는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주

장할 수 없다.(이탈리아에는 몇 세기 동안 그 나라 사람들이 거주해왔으므로).  
콜럼버스가 '발견의 권리에 의해서'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것은 노드웰이 이탈리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같다.(아메리카 대륙에도 몇 세기 동안 그 대륙 사람들이 거주해왔으므로).  
따라서 콜럼버스는 '발견의 권리'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권리에 의해서도 아메리카 대륙을 거기에 살지 않는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Rule39 인과관계의 기초는 상관관계.**

**인과논증은 상관관계에서 시작한다.**

인과논증은 상관관계에서 시작합니다. 상관관계란 대체로 두 개의 사건 사이 또는 두 종류의 사건 사이에 존재하는 규칙적인 연관을 뜻합니다.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인과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관관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텔레비전에서 외모지상주의적 발언이나 장면이 나오는 빈도가 잦아진다.  
성형수술이 늘어나고 있다.

**예시**

민수는 키가 크다.  
민수는 농구를 잘한다.

**예시**

마이클은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한다.  
마이클은 최신 뉴스를 많이 알고 있다.

**예시**

예지는 학교수업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공부한다.  
예지는 공부를 잘한다.

**Rule40 우연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닌지 검토하라.**

인과관계는 필연성을 바탕으로 한다. **원인과 결과가 필연성을 갖고 있는지를 검토하라.**

**2011 연세대 사회 中**

최고의 탁월한 이성과 반성 능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던져졌다고 상상해 보자. 그는 어떤 일들이 연달아 발생하는 것을 직접 관찰하게 된다. 그렇지만 그 이상의 어떤 것도 발견해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이성적으로 추론해서 원인과 결과의 관념에 도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자연의 작용을 이끌어가는 특별한 힘은 감각에 의해서는 결코 포착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한 사건이 다른 사건에 앞서서 일어났다고 해서 앞의 사건이 원인이고 뒤의 사건은 결과라고 결론짓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 그 두 사건의 결합은 임의적이고 우연적일 수 있다.** 뒤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앞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추론할 만한 근거가 없을 수도 있다. 요컨대 앞에 예로 든 그 사람이 계속 경험을 쌓아나가지 않는다면, 그는 어떠한 사태에 관해 추측할 수도 추론할 수도 없을 것이며, 그의 기억이나 감각에 직접 주어진 것을 넘어선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결코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앞에서 말한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좀 더 경험을 쌓고 오래 살아서 유사한 대상들 혹은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음을 관찰했다고 상상해 보자. 이 경험으로부터 그가 얻게 되는 바는 무엇인가? 그는 한 대상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그것의 원인이 되는 다른 대상의 존재를 즉각 추리한다. 그러나 그가 경험을 총동원한다고 해도 그는 한 대상이 다른 대상을 산출하는 비밀스러운 힘에 대한 관념이나 지식은 전혀 가질 수 없다. 또한 어떠한 논리적 과정을 통해서도 원인이 되는 대상을 추리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고집스럽게 두 대상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리고 비록 자신의 이해력이 이렇게 추리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군가 그에게 확신시켜주더라도, 그는 동일한 사고 과정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그에게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하는 어떤 다른 원리가 있다.

인과관계는 필연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두 사건이 인과관계에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사건이 임의적이고 우연적인 결과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우연과 원인을 혼동하는 오류는 글을 읽는 이로 하여금 글의 설득력에 대해 의심하게 하고 글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나쁜 예시**

그가 텔레비전을 보자마자 내가 응원하던 팀의 투수가 홈런을 맞았다.  
그는 불행을 가져오는 사람이 분명하다.

**나쁜 예시**

빨간 속옷을 입었을 때 시험을 잘 쳤다.  
빨간 속옷을 입어야 시험을 잘 칠 수 있는 것이다.

The 논술  
ADVANCED

논쟁의 오류

### Error1 선결문제의 오류

주장 자체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 주장이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것. 또는 전제 속에 결론과 같은 뜻의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말한다. 선결문제(요구)의 오류 또는 순환논리의 오류라고도 하며, 논리적 오류 중에서는 형식적 오류에 해당한다.

아래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제6장에서 앨리스가 체셔 고양이와 나눈 대화이다:

“소용없어. 여긴 모두 미쳤으니까. 너도 미쳤고 나도 미쳤지.”

“내가 미쳤는지 어떻게 아는데?”

“틀림없어. 미치지 않았으면 여기 없었으니까.”

앨리스는 고양이 말이 올바른 증명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한마디로, '여기 있는 사람은 모두 미쳤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은 모두 미쳤기 때문이다'. 실로 적절한 순환논증의 예시이다.

甲: 자네는 가난해.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궁핍하기 때문이지.

乙: 그럼 선생님, 저는 왜 경제적으로 궁핍한 건가요?

甲: 그건 자네가 돈이 없기 때문일세!

乙: 왜 제가 돈이 없을까요?

甲: 그야 자네가 가난하기 때문이지!

도둑들이 왕의 몸값으로 받은 7개의 보석을 나누면서 논쟁을 벌이고 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도둑에게 2개를 건네주고 또 왼쪽에 있는 도둑에게 2개를 주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3개를 가져야겠다"고 말한다. 그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물었다. "왜 너는 3개를 가져야 하지?" "내가 두목이니까." "아니, 어째서 당신이 두목이냐?" "내가 더 많은 보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학생: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교사: 공부를 쉽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학생: 어떻게 해야 공부가 쉬워질까요?

교사: 공부를 잘 하면 돼.

### Error2 자가당착의 오류

논증이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에 범하는 오류이다.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뚫고,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막는다.

자, 여러분! 모든 물건을 순식간에 녹일 수 있는 약을 발명하였습니다. 그 약이 지금 이 병에 들어 있습니다.

### Error3 선언지 긍정의 오류

선언적 삼단 논법에서 대전제의 어느 한 명제를 긍정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다른 명제의 부정을 도출한다고 여기는 오류로 포괄적 선언명제와 배타적 선언명제를 혼동해서 생기는 오류이다.

아주 쉽게 말하자면 어느 전제의 대상이 A일수도 있고 B일수도 있다는 건데 대상이 A라고 해서 B가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최이슬은 미술부원이거나 축구부원이다. 최이슬은 미술부원이다. 따라서 최이슬은 축구부원이 아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어떤 싱어송라이터는 가수이거나 작곡가이다. 그 사람은 가수이다. 따라서 그 사람은 작곡가가 아니다.

### Error4 전건부정의 오류 및 후건긍정의 오류

조건 논증의 경우, 전건을 긍정하거나 후건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참이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오류가 된다. 이 오류는 'A이면 B이다'에서  $A \supset B$ 는 성립하지만  $A \subset B$ 는 성립하지 않을 경우(즉,  $A \subset B$ 까진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한다. 어떤 명제가 참일 때 그 역과 이도 참일 것이라 생각하면 이 오류로 이어진다. 어떤 명제의 역도 참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후건 긍정의 오류가 되고 어떤 명제의 이도 참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전건 부정의 오류가 된다. 다만, 어떤 명제가 참일 때는 그 대우도 항상 참이 되므로 후건 부정 논증은 합당하다.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혼동하는 오류'라고도 한다.  $P \Rightarrow Q$ 가 참이면  $\sim Q \Rightarrow \sim P$ 도 참이지만,  $\sim P \Rightarrow \sim Q$ 와  $Q \Rightarrow P$ 는 참이 될 수도, 거짓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장작불에 모래를 끼었으면 불이 꺼진다."라는 명제가 있다면, 장작불에 모래를 끼었는 것(P)은 불이 꺼지기(Q) 위한 충분조건이 되고, 불이 꺼지는 것(Q)은 장작불에 모래를 끼었기(P) 위한 필요조건이 된다. 만약 장작불이 꺼지지 않았다( $\sim Q$ )고 선언하면 모래를 끼었지 않았다( $\sim P$ )라고 할 수 있으나, 모래를 끼었지 않았다( $\sim P$ )고 선언하면(전건부정) 다른 걸 끼었거나 다 탈 때까지 기다려서 저절로 꺼졌을(Q) 수도 있고, 장작불이 꺼졌다(Q)고 선언하면(후건긍정) 마찬가지로 모래를 끼었지 않고 다른 걸 끼었거나 다 탈 때까지 기다렸을( $\sim P$ ) 수도 있다.

4의 배수는 짝수이다. 6은 4의 배수가 아니다. 그러므로 6은 짝수가 아니다. (전건부정)/ 4의 배수는 짝수이다. 10은 짝수이다. 그러므로 10은 4의 배수이다. (후건긍정)

만일 수영이 있다면 남자이다. 그는 수영이 없다. 그러므로 그는 남자가 아니다. (전건부정)/ 만일 수영이 있다면 남자이다. 그는 남자이다. 그러므로 그는 수영이 있다. (후건긍정)

기차를 타면 멀리 갈 수 있다. 그는 기차를 타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멀리 가지 않았을 것이다. (전건부정)/ 기차를 타면 멀리 갈 수 있다. 그는 멀리 여행을 갔다. 그러므로 그는 기차를 탔을 것이다. (후건긍정)

선출직 공무원은 정무직 공무원이다. 갑은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다. 따라서 정무직 공무원이 아니다. (전건부정)/ 을은 정무직 공무원이다. 따라서 을은 선출직 공무원이다. (후건긍정)

#### **Error5 매개념부주연의 오류**

Fallacy of the undistributed middle 혹은 non distributio medii라고 한다. '모든 X는 Y이다. Z도 Y이다. 따라서 Z는 X이다'의 형식의 오류로, 3단논법에서 매개념(X)이 외연전부(Y)에 대하여 성립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오류이다. 이러한 추론은 XYZ의 관계가  $Z \subseteq X \subseteq Y$  ( $\subseteq$ :부분집합)가 아니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참인 명제라 볼 수 없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책을 많이 읽어. 나도 책을 많이 읽지. 그러니까 난 머리가 좋을 거야.

미녀는 석류를 좋아한다. 나도 석류를 좋아한다. 그러므로 나는 미녀다.

모든 개는 포유류다. 사람도 포유류다. 따라서 사람은 개다.

술은 마실거리다. 우유도 마실거리다. 그러므로 우유도 술이다.

#### **Error6 애매어의 오류**

단어 중에는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사용되는 애매어들이 있다. 한국어를 예시로 들면 말(horse, speech)과 눈(snow, eye) 등이 그러한 단어들이다. 즉 우연이든 고의든 간에 단어나 구의 여러 의미들을 혼동하여, 다시 말해 그러한 단어를 애매하게 사용하여 논증의 문맥 속에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야. 그리고 모든 죄인은 감옥에 가야 해.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감옥에 넣어야겠군.

선생님께서 도서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 영희의 집은 도서관 바로 옆에 있어. 영희는 공부를 잘하겠군.

문화나 도덕에서 객관적 표준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기준은 상대적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미 상대성 이론을 입증하지 않았습니까?

#### **Error7 애매한 문장구조에 의한 오류**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들의 영성하고 어색한 연결방식 때문에 그 문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을 때, 그것을 애매한 문장이라고 말한다. 구조적으로 애매한 문장은 어떤 경우에는 참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다른 경우에는 거짓으로 해석될 수 있다. 어떤 문장을 참으로 해석하여 전제로 진술하고, 동시에 이 문장을 거짓으로 해석하여 어

면 결론을 바로 그 전제에서 끌어낼 때 이러한 오류를 범한다.

리디아 국왕 크로이소스가 페르시아를 치려고 신탁을 구하자, 신탁관은 "크로이소스가 마침내 강대국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 신탁을 믿고 페르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하다가 박살난 크로이소스 왕이 신탁을 받은 신전에 가서 항의하자, 신탁관은 "멸망한다는 강대국이란 곧 리디아였다" 라고 했다고 한다

#### **Error8 은밀한 재정의의 오류**

애매어의 오류'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다. 애매어의 오류가 단어 자체에 원래 존재하는 애매성을 이용한 오류라면, 은밀한 재정의의 오류는 주장하는 쪽이 자기 혼자서 일부러 애매성을 만든 경우를 말한다. 언어는 사회성과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개인적 필요에 따라 개인이 즉흥적으로 단어의 의미를 마음대로 변화시키는 것은 언어 소통에 큰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어떤 단어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변화시키는 오류를 범한다.

십자군 전쟁이나 30년 전쟁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모든 전쟁의 원인은 바로 종교적 신념에 있다. 아, 그러면 6.25 전쟁은 무슨 경우냐고? 아 그거야 당연히, 김일성 처럼 "종교적" 인 사람도 없었지. 전쟁에 대한 그의 이기적 열망이야말로 "종교적" 이라는 단어에 가장 잘 부합하지 않은가!

신은 공평하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공평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똑같이 불공평하기 때문이다

미친 사람은 정신병원에 수용해야 해. 요즘 세상에 뇌물 주는 것을 물리치다니, 미치지 않고 그럴 수 있어? 그 친구 정신 병원에 보내야겠어.

#### **ERROR9 인신공격의 오류**

어떤 사람의 말하는 주장이나 행위를 그 내용과 관련된 정당한 근거에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성격이나 지적 수준, 사상, 인종적 배경 등의 이유로 그 주장이 틀리거나 나쁘다고 일축할 때 이러한 오류를 범한다. 특히 어떤 사람에 대한 비난의 태도를 촉발할 경우, 감정적인 비난의 폭이 넓어져 마침내 상대방의 주장까지도 동의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기본 귀인오류(Fundamental Attributional Error)라고 부른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무가치하다. 그는 사형을 받고 죽은 사람이니까.

그 여자애들이 싫어하는 건 정말 터무니없는 이유뿐이야. 그러니 그 여자애들이 형편없는 여자애들이지.

#### **Error10 원천봉쇄의 오류(우물에 독 넣기)**

어떤 특정 주장에 대한 반론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원천(우물)을 비판함(독을 뿌림)으로써 반론의 제기 자체를 불가능케 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옹호하고자 하는 불공정한 전략이다.

나는 오늘날 현대인들은 타락했다고 생각한다.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이 이미 타락하였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무제는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이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영세 상인을 죽이고 대형마트 배를 불러주자는 사람이다.

### Error11 무지에 의거한 논증

단순히 어떤 명제가 거짓이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그 명제가 참이라고 주장하거나, 반대로 그 명제가 참이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명제는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많은 학문적 이론과 법칙이 바로 이 무지에 의거한 논증의 오류의 도움을 받아 탄생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좀 다른 경우다. 그런 경우는 어디까지나 가설을 세울 때만 그런 것이고, 실제로 맞다고 논증한 것이 아니다. 세운 가설은 반드시 과학적 방법을 거쳐 증명해야 이론과 법칙이 된다. 가설 상태에서 옳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그냥 사이버 과학일 뿐이다.

홀수 완전수가 존재하는가의 여부는 증명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홀수 완전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신이 없다고? 없다는 걸 증명해 봐. 못 하지? 그러니까 신은 있는 거야.

다윈의 진화론에 의하면,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자연적 선택의 원리에 의해 진화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진화가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 줄 수 있는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쯤 되는 동물의 화석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다윈의 진화론은 잘못이다.

완전범죄가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진 적은 없다. 그러므로 완전범죄는 없다.

### Error12 연쇄반응의 오류

도미노의 오류 혹은 미끄러운 비탈길의 오류라고도 한다. 앞에서 말한 반사실적 가정을 연속적으로 범한 오류로, 어떤 행위나 사건을 특정한 결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단계들 중 한 단계라고 가정함으로써 범하게 되는 오류로, 원인과 결과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 그 사이에 수많은 관계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면 이 오류로 이어지게 된다. 비유하자면, 차량이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하면 부산으로 가기까지 수많은 나들목과 분기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무조건 그 차량의 목적지가 부산일 것이라고 단정지어 버리는 것과도 같은 꼴이다. 이와 관련된 이론으로 나비효과가 있다.

정치 면에서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이 이런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사회의 변화양상에 대해 이 오류를 범한 논리로 대하며 사회의 변화를 반대하거나 변화 자체를 부정하는 것. 아래의 사형제에 대한 예시도 이와 관련이 있다.

제가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된 건 모두 아버지 탓입니다. 만일 그 때 아버지가 저를 꾸짖지만 않았어도 핏김에 술을 마시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음주 사고로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사형제도를 폐지하면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이 된다. 그러면 각종 흉악범죄가 더 흉포해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국가의 치안은 크게 불안해진다. 따라서 사형제 폐지는 국가 치안의 혼란을 야기시킨다.

### Error13 우연의 오류와 역도 우연의 오류

일반법칙을 적용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 일반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나, 이와는 반대로 특수한 경우에만 참인 것을 일반적인 경우에도 참이라고 가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후자를 가리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부른다.

살인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므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도 결코 선한 사람으로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안중근도 명백히 테러리스트 범주에 든다고 봐야 해.

칼로 상처를 내는 것은 범죄행위이다. 외과의사는 칼로 상처를 낸다. 따라서 외과의사는 범죄자이다

군자는 남의 약점을 노리는 비겁한 짓을 해선 안 된다. 따라서 강을 건너오는 적군을 기습해서는 안 된다.

살인 등 강력 범죄를 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서든 어택이나 카운터 스트라이크, GTA 등 폭력적인 게임을 한다. 그러므로 서든 어택이나 카운터 스트라이크, GTA 등 폭력적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살인 등 강력 범죄를 하는 사람들이다.

### Error14 흑백논리의 오류

선과 악의 이분법, 모든 것을 좌파와 우파로만 보려는 좁은 시각, 또는 종교간의 양극을 예로 들 수 있다. 모든 문제를 흑과 백, 선과 악, 득과 실의 양 극단으로만 구분하고 중립적인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려는 편중된 사고방식이나 논리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어느 쪽이든 극에만 치우친 경우가 많으며, 중도나 중립적인 입장을 죽어도 인정하지 않는다. 중립이라는 것을 아예 부정하는 것처럼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 무조건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다. '회색분자' 또는 '기회주의자'라며 그들을 매도해버리기도 한다. 사실 사고방식이 다양해진 현대 사회에서 한쪽에만 치우쳐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만큼 어리석고 멍청한 것도 없으므로, 원론적인 얘기라 할지라도 상대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필요하다.

넌 별로 슬퍼하지 않는구나, 나랑 헤어지는게 기쁜 모양이지?

이대로 빗쟁이한테 시달리느냐, 아니면 자살하느냐, 둘 중 하나다.

모 아니면 도

### Error15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

상대방의 주장을 무시하고, 그 주장의 왜곡되고 과장된 주장을 만들어서[38] 그 주장을 반박하여 원래의 주장을 반박하려는 시도. 《논리와 비판적 사고》의 저자 김광수 교수

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자를 고양이라고 해서 사자가 고양이로 되는 것도 아니고, 고양이를 쓰러뜨렸다고 해서 자랑스러워할 것도 없다".

주로 인신공격의 오류, 우물에 독타기의 오류와 함께 이용된다. 그 형식은 다음과 같다.

A가 X라는 주장을 한다.

B가 Y라는, X를 왜곡한 주장을 제시한다.

B가 Y를 공격한다.

따라서 X는 거짓이다.

이 논증이 오류인 이유는, X의 왜곡된 변형인 Y를 부정하는 것으로는 X의 거짓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甲 : 아이들이 도로에서 노는 건 위험합니다.

乙 : 아닙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노는 건 좋은 일이죠. 지금 이 얘기는 아이들을 집안에 가둬 키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올바른 교육방법입니까?

체벌 금지의 교육을 포기하자는 말이다.

한완상 부총리가 학력란을 철폐하겠다는 발언이 큰 화제가 됐다. 내가 보고 있는 미국의 처절한 노력과는 너무나도 대비가 되는 것 같다. 얼마전 부시 대통령이 '학업지진아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을 했다. 주 정부 관할하에 2005학년도부터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모든 학생이 수학과 독해를, 2007년 학년도부터는 초중고 재학중 3년마다 과학 시험을 치러야 하는 이 법안을 보면 혁명적인 내용이 들어 있다. 공립학교가 2년 연속 주정부 기준의 성적에 미치지 못하면,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그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교통편을 제공해야 하며, 4년 연속 성과를 내지 못하면 학교 경영진과 교육 과정을 교체하며, 5년 연속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직접 민간에게 위탁하거나, Charter School(협약학교)로 전환하거나 학교경영진을 전원 교체하도록 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개입이 지극히 제한적인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미국 연방정부의 노력은 이 정도로 가상할 정도이다. 세계가 학력(學力)을 높이려고 야단인데 교육의 수장이 나서서 학력(學歷) 타령이나 하고 있을 때인가.

#### **Error16 특별변론의 오류**

일관성과 보편성이 결여된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오류로, 정당한 근거 없이 특정한 사례에 예외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범하게 되는 오류이다. 다시 말해서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식의 오류.

길거리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미모를 자랑하는 여성들이 많이 활보하는 것은 분명 좋은 현상이다. 하지만 내 여자 친구는 소중한니까 다른 남자들이 눈독을 들이지 못하게 절대로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면 안 된다.

한국의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몰아넣는 교육 풍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면서 정작 자기 자식에겐 죽어라 공부를 시키는 아버지에게 아들이 불만을 토로하자 아버지가 이렇게 답했다. "다 너 잘 되라고 이러는 거야."

### Error17 결합의 오류

합성의 오류라고도 한다. 전체에 속하는 부분적 속성으로부터 전체 자체의 속성을 잘못 추리하는 것, 또는 부분 또는 개별적인 원소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그 원소들의 전체 혹은 그 집합도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하는 오류이다. 경제학에도 구성의 오류라는 비슷한 개념이 존재한다. 미시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것이라도 거시적 관점에서는 비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

모래알 한 알은 매우 가벼우니 한 트럭에 담긴 모래더미도 가벼울 것이다.

산삼, 녹용, 스쿠알렌, 알로에, 로얄제리, 웅담을 합치면 틀림없이 좋은 약이 될 거야.

산소와 수소는 폭발하기도 쉽고 다루기도 어려운 매우 위험한 기체이다. 당연히 그 둘을 반응시켜 합친 물질도 매우 위험할 것이다.

### Error18 분해의 오류 (division)

분할의 오류라고도 한다. 전체 또는 집합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또는 원소도 그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하는 오류추리, 또는 어떤 집합의 속성에서 원소 자체의 속성을 논증하는 것을 말한다.

××대학교는 전국에 이름난 명문 대학교다. 따라서 ××대학교에 다니는 울동이는 엄청나게 잘 하겠다.

내 외국인 친구 중에 브라질 국적의 친구가 있어. 브라질은 축구 강국이니. 그 친구도 축구를 엄청나게 잘 하겠지?

이씨는 부자야. 그러니까 입고 있는 옷이랑 자동차, 집도 틀림없이 비쌀 거야.

### Error19 자연주의의 오류

"X는 Y이다, 따라서 X는 Y여야 한다." 는 형식의 추론을 '자연주의의 오류'라고 한다. 이 추론은 모든 경우에 거짓은 아니지만 모든 경우에 참도 아니며, 이러한 논법이 논리적인 추론으로서 유효하다면 어떠한 개혁이나 변경은 허용되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아래 예문의 첫번째 발언은 "인류는 많은 전쟁과 살육을 되풀이해왔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주장과 논리구조가 비슷하다. "~이다"라는 관찰사실에서 "~여야 한다"라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없다(존재로부터는 당위가 도출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흠의 법칙이라고 하며, 이러한 오류를 Is-ought problem(~이다-~여야 한다는 혼동)라고도 한다. 주로 성차별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 성 소수자 차별주의자들의 논변 중 적지 않은 수가 이 오류를 범하고 있다.

우리들은 계속 이 땅에서 살아왔었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해.

갑돌이는 핫케이크를 좋아해. 그러니까 핫케이크를 먹게 해 줘야 해.

사람은 이성을 사랑하고 이성과 결합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연의 순리다. 따라서 동성을 사랑하는 저들은 존재 자체가 잘못이다.

#### **Error20 근시안적 귀납의 오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와 비슷한 오류로,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검토하였으나 그 자료를 선택하거나 해석함에 있어 중요한 측면을 간과함으로써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는 오류. '논증 부족의 오류'라고도 한다.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 1936년 미 대선의 설문조사가 있다. 당시 미 대선은 공화당의 랜던 후보와 민주당의 루스벨트 후보의 대결이었다. 이때 리터러리 다이제스트(Literary Digest)라는 잡지사가 무려 1,000만 명의 유권자에게 설문지를 우송한 뒤 약 240만 명으로부터 응답을 회수하였는데, 회수된 설문지에서는 루스벨트가 43%의 지지율밖에 못 얻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이에 따라 이 잡지사는 랜던의 승리를 예상 발표하였다. 그러나 실제 선거 결과는 민주당의 루스벨트 후보가 62%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었다. 이는 이 리터러리 다이제스트誌의 구독자들이 부유층이었기 때문인데, 당시는 1929년의 대공황의 여파로 경제적 불황이 심한 시기였다. 뉴딜정책이라는 막대한 공공사업을 추진하려는 재원 마련을 위해 민주당은 세금을 많이 걷는 정책을 펴고 있었고, 무거운 세금에 불만을 품고 있던 부유층의 지지기반을 위해 공화당은 이를 반대하였다. 결과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은 민주당을, 높은 계층은 공화당을 선호하였다. 리터러리 다이제스트사가 뽑은 '부유층 위주의' 표본 속에는 루스벨트 후보 지지자가 전체보다 적었기 때문에 루스벨트가 선거에서 지는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물론 실제로는 루스벨트 후보 지지자가 더 많았기 때문에 당선된 것은 루스벨트였다.

야구장에서 1000명에게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더니 75%가 야구를 좋아한다고 했다. 따라서 한국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야구가 틀림없다.

설문조사에 응한 60대 남자들 가운데 72%가 동성동본의 경우 혼인을 금지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므로 남자들 가운데 72%는 동성동본 혼인금지 조항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 **Error21 거짓원인의 오류**

어떤 사건이나 사물의 원인이 아닌 것을 그것의 원인으로 여기는 경우를 말한다. 보통은 원인으로 간주되는 사건이 문제의 사건보다 앞서 발생하는 경우에 이 오류가 흔히 발생한다. 단순히 우연의 일치로 발생한 시간상의 선후 관계가 두 사건의 인과적 연결을 확립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만일 어떤 미개인이 일식 때 북을 치는 것이 해가 다시 나오는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서 자기가 북을 칠 때마다 어김없이 해가 다시 나왔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주장을 일축할 것이다.

오늘날 사회에는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교회가 세워졌다. 마찬가지로 전보다 훨씬 더 많은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다. 그러므로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회 수를 줄여야 한다.

1,800년 이후로 해적이 감소했다. 지구의 평균온도는 상승했다. 따라서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해적의 감소에 있다.

학생들로 붐비는 PC방에서 정전을 시켜 보았더니 게임을 하던 학생들이 갑자기 폭력적으로 돌변했다. 그러므로 게임은 청소년들의 폭력성을 조장한다.

새벽이 올 때는 꼭 닭이 울더라. 닭 목을 비틀어버리면 새벽도 안 올테니 늦잠을 자도 상관이 없겠지!

#### **Error22 잘못된 유추의 오류**

잘못된 유추의 오류는 부당하게 적용된 비유에 의해 일부분이 비슷하다고 해서 나머지도 비슷할 것이라고 여겨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는 오류로, 질적, 양적으로 비교되는 두 유형의 대상들 간에 유사성의 정도는 약하고 차이성의 정도가 강할 때 발생하는 오류이다.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논증 중 설계에 의한 논증이 이 오류를 범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시계의 비유'로 알려진 논증이 그렇다. 이 논증에 따르면, 사막에 시계 하나가 떨어져 있을 때 그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듯이, 시계보다 훨씬 정교한 인간이나 우주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시계와 인간사이, 그리고 시계와 우주 사이에 어느 정도의 유사성이 있는가?

컴퓨터와 사람은 유사한 점이 많아. 그러니 컴퓨터도 사람처럼 감정을 느낄거야.

누구에게나 책을 참고할 권리가 있다. 법률가는 일을 할 때 마음대로 법률 서적을 참고하며, 요리사도 요리를 할 때 마음대로 요리책을 참고한다. 따라서 학생이 시험을 볼 때도 책을 마음대로 참고할 수 있어야 한다.

군인도 자신이 복무하는 부대의 사진을 마음대로 촬영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여행가는 자신이 여행한 곳의 풍경을 사진에 담으며, 아이의 부모도 아이의 모습을 사진 속에 간직하기 때문이다.

망고와 레몬은 똑같이 노란 과일이다. 그러므로 레몬 또한 망고처럼 달 것 이다.

#### **Error23 공통원인 무시의 오류**

일치하여 발생한 두 사건이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듯할때 제3의 공통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있다. 그런 의심을 하지 않고, 일치하여 발생한 두 사건 중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의 원인이 된다고 선불리 가정하는 것이 이 오류.

어떤 강의를 듣는 두 학생이 제출한 학기말 보고서가 정확히 똑같았다. 그 두 학생이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이며, 서로 상대의 보고서를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생님은 그들의 주장을 믿지 않고 두 학생이 서로 상대방의 보고서를 베꼈음에 틀림없다고 주장한다.

숯이 타서 붉게 변하면 고기가 익는다. 따라서 숯의 붉은색은 고기를 익게 한다.

성범죄자의 가택에서 다량의 포르노가 입수되었다. 그러므로 포르노가 성범죄를 유발했을 것이다.

이 건물에 불이 났을 때 갑자기 엄청난 폭발음이 들렸다. 그러므로 폭발음이 화재의 원인이다.

#### **Error24 인과 전도의 오류**

인과 전도의 오류는 인과관계를 서로 뒤바꾸어 원인을 결과로 보고, 결과를 원인으로 보는 데서 생기는 오류이다. 거짓원인의 오류와도 비슷하지만, 두 사건의 연결 고리를 찾을 수 없는 거짓원인의 오류와는 달리 인과 전도의 오류는 연결 고리가 있긴 하지만 그 연결 고리를 뒤집어서(해당 전체의 역(逆)으로) 보았을 때 저지르는 오류이다. 즉, A이기 때문에 B인 것을 B이기 때문에 A인 것으로 착각하는 오류.

어떤 사람이 미국 주요 도시의 범죄 발생 건수와 경찰관 수를 조사하였더니, 그 결과 두 변수 사이에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안전벨트의 착용을 의무화 시켰더니 오히려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므로 안전벨트의 착용은 더 많은 사고를 발생시킨다.

여러분, 인구가 많은 지역에 가면 언제나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늘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 마을에도 고층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인구를 늘려야 합니다.

#### **Error25 지나친 단순화의 오류**

지나친 단순화의 오류도 역시 인과관계를 잘못 파악함으로 인해 저지르게 되는 오류로, 인과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 이를 너무 단순화시켜 버리면 오류로 이어진다. 즉, 부분적인 이유를 전체적인 이유로 착각하는 데서 이 오류를 범하게 된다. 예를 들어, 원인 A는 결과 B의 수많은 원인들 중 하나일 뿐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전적으로 원인 A로 인해 결과 B가 도출되었다고 단정을 짓는 것이다. '다수원인의 오류'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교육의 질은 몇 년 동안 저하되어 왔다. 분명히 우리 교사들은 오늘날 자신의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

TV에서 한 슈퍼모델의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바나나를 즐겨 먹어서 날씬한 몸매가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나도 바나나를 많이 먹기만 하면 날씬해질 수 있을 거야.

장사가 잘 되는 우리 동네 고기집에서 고기 맛을 보니 맛이 매우 좋았다. 그러므로 고기의 맛이 고기집의 대박을 불러온다.